

헬라어반교재

헬라어 원전분해를 통한 설교잘하기

데이빗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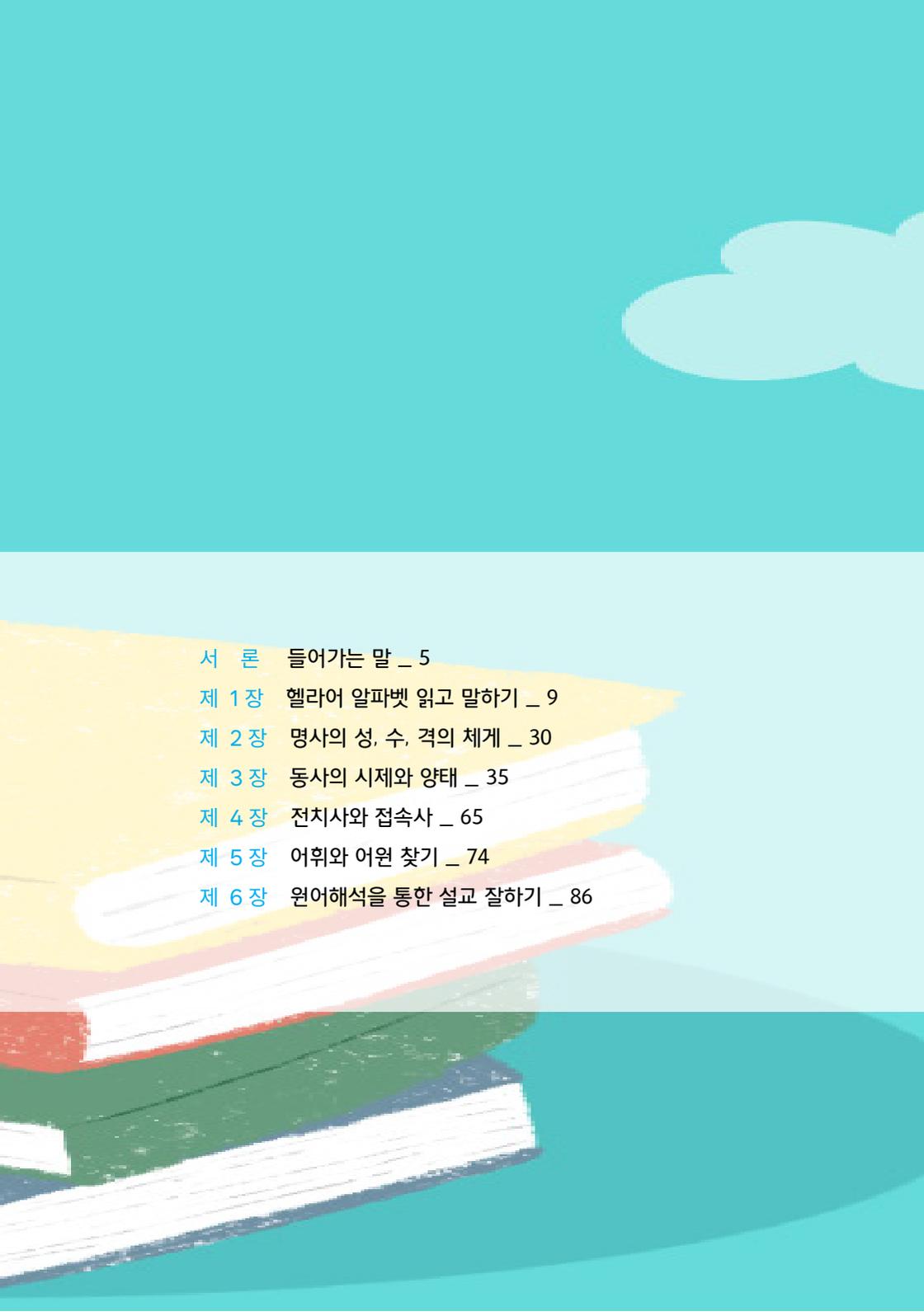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차 CONTENTS





서 론	들어가는 말	_ 5
제 1 장	헬라어 알파벳 읽고 말하기	_ 9
제 2 장	명사의 성, 수, 격의 체계	_ 30
제 3 장	동사의 시제와 양태	_ 35
제 4 장	전치사와 접속사	_ 65
제 5 장	어휘와 어원 찾기	_ 74
제 6 장	원어해석을 통한 설교 잘하기	_ 86



서론

/

들어가는
말

태초의 음성, 그 깊은 울림을 회복하는 길

성경을 원어로 읽는다는 것은 기록된 글자 너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건네신 태초의 음성을 가장 선명한 주파수로 대면하는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헬라어는 단순한 고전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을 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련하신 '계시의 그릇'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진리의 강단에 서지만, 번역의 한계라는 얇은 베일에 가려져 원문이 뿜어내는 날카롭고도 따뜻한 진리의 빛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해 고뇌하곤 합니다. 본 교재는 단순히 문법 지식을 나열하는 언어학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어 문법의 정교한 뼈대를 통해 흐르는 구속사적 진리(Redemptive-Historical Truth)의 맥락을 짚어내고, 마른 뼈와 같은 지식에 심층적인 문맥 분석과 영적 적용이라는 생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강단에 서는 설교자를 위한 조언

설교자에게 원어 연구는 지적인 장식이 아니라 양 떼를 향한

가장 정직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설교자가 원문의 본의(本意)를 붙들 때 설교는 비로소 사람의 웅변을 넘어 하나님의 대언(代言)이 됩니다.

언어의 뉘앙스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십시오. 부정 과거 시제의 단호함에서 구원의 확신을, 중간태의 자발성에서 주님의 희생을 읽어내십시오. 문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도입니다.

본문에 정직하되, 원어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원어 분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분석의 칼로 본문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십시오. 원어 연구의 끝은 언제나 복음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지적인 교만을 경계하고 기도로 연구하십시오. 원어를 안다는 것이 영적인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과 문법책을 펴기 전, 성령의 조명을 먼저 구하십시오. 연구실에서의 치열한 주해 과정이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재를 펼친 모든 설교자가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는 수고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

는 치열함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라는 거룩한 렌즈를 통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압도적인 풍성함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1월
데이빗리 목사





1 장

/

헬라어 알파벳 읽고 말하기

제 1 장 헬라어 알파벳 읽고 말하기

도입내용

헬라어 학습의 첫 번째 장벽은 낯선 문자입니다. 하지만 알파벳 스물네 글자만 눈에 익히면, 베들레헴 성경 앱에 나오는 단어들을 스스로 읽고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 헬라어 알파벳 (The Alphabet)

헬라어는 총 24자로 구성됩니다. 쓰는 법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 읽기'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 구분하기'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명칭	발음	비고
A	α	알파	a (아)	
B	β	베타	b (베)	
Γ	γ	감마	g (가)	뒤에 γ·κ·χ가 오면 'o' 발음
Δ	δ	델타	d (데)	
E	ε	엡실론	e (에)	짧은 '에'
Z	ζ	제타	z (제)	
H	η	에타	ē (에-)	긴 '에'

Θ	θ	데타	th (떼)	번데기 발음
I	ι	이오타	i (이)	
K	κ	카파	k (카)	
Λ	λ	람다	l (라)	
M	μ	뮤	m (뮌)	
N	ν	뉴	n (뉘)	영어 'v'와 혼동 주의
Ξ	ξ	크시	x (크시)	
O	ο	오미크론	o (오)	짧은 '오'
Π	π	피	p (피)	
P	ρ	로	r (로)	영어 'p'와 혼동 주의
Σ	σ/	시그마	s (시)	는 단어 끝에만 사용
T	τ	타우	t (타)	
Υ	υ	웁실론	u (위)	독일어 ü 발음
Φ	φ	피	ph (피)	f 발음
X	χ	키	ch (키)	가래 끓는 'ㅎ' 소리
Ψ	ψ	프시	ps (프시)	
Ω	ω	오메가	ō (오-)	긴 '오'

2. 헬라어 알파벳 쓰기 연습

헬라어 알파벳 쓰기 연습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익히는 과정을 넘어, 성경 원문의 깊은 영맥(靈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설교자가 원문의 획 하나, 점 하나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알파벳의 형상과 소리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헬라어 알파벳의 구성과 영적 의미

헬라어 알파벳은 총 24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파<A, α>'와 '오메가<Ω, ω>'라 칭하신 것처럼(계 21:6), 헬라어 문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을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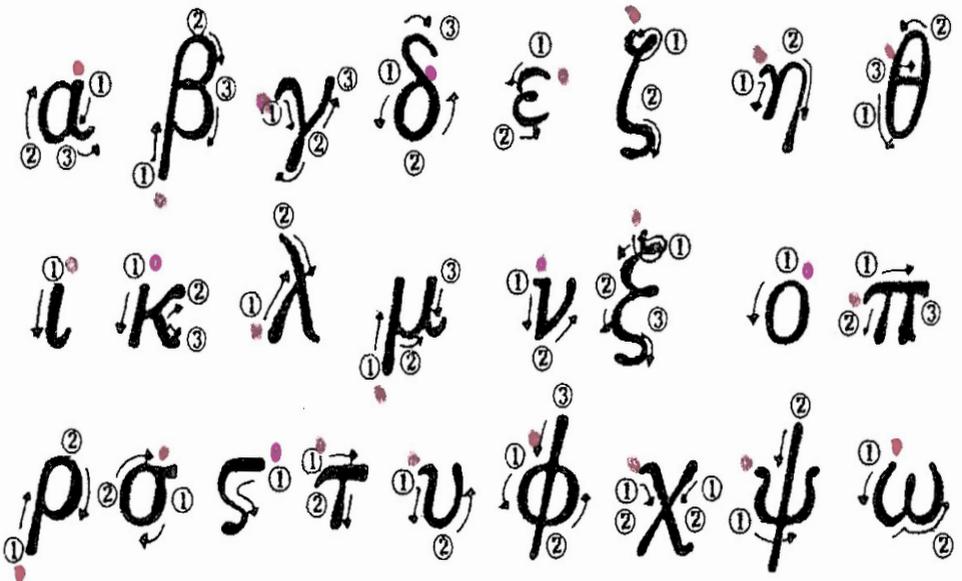
- 대문자: 주로 문장의 시작, 고유 명사, 또는 강조를 위해 사용됩니다.
- 소문자: 실제 성경 본문 읽기와 사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이므로, 소문자 쓰기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나. 올바른 쓰기 연습을 위한 지침

헬라어는 영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획의 순서와 방향에 따라 글자의 맛과 가독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 획의 방향(Direction): 대다수의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특히 '시그마<σ, ς>'나 '세타<θ>'처럼 달힌 곡선이 많은 글자는 획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준선(Base Line) 지키기: 헬라어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글자(예: '델타<δ>', '람다<λ>')와 기준선 아래로 꼬리가 내려가는 글자(예: '감마<γ>', '에타<η>', '뮤<μ>', '키<κ>')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4줄 연습장을 사용하여 글자의 높낮이를 정확히 익히십시오.
- 유사한 글자 구별: '뉴<ν>'와 영어의 'v', '우플실론<υ>'과 영어의 'u'는 매우 흡사하므로 헬라어 특유의 곡선미를 살려 구별되게 써야 합니다. 또한 '카이<κ>'를 쓸 때는 단순한 'x'가 아니라 왼쪽 아래로 길게 뻗는 획의 느낌을 살려야 합니다.



3. 헬라어 문자에 대하여

가. 헬라어 문자의 구성과 기초

- 1) 성서 헬라어 알파벳은 총 24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 2) 자음(17개): β(베타), γ(감마), δ(델타), ζ(제타), θ(데타), κ(카파), λ(람다), μ(뮤), ν(뉴), ξ(크시), π(피), ρ(로), σ(시그마), τ(타우), φ(피), χ(키), ψ(프시)
- 3) 모음(7개): α(알파), ε(엡실론), η(에타), ι(이오타), ο(오미크론), υ(웁실론), ω(오메가)

나. 발음 기관(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헬라어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를 바르게 발음하는 것은 성경의 음절 하나 하나를 정확히 읽어내는 기초가 됩니다.

- 1) 순음(Labials - 입술소리): μ(뮤), π(피), β(베타), φ(피), ψ(프시) 두 입술이 맞닿으며 나는 소리입니다.

- 2) 설음(Liquids/Sibilants - 혀소리): σ (시그마), λ (람다), ρ (로), ν (뉴), ζ (제타) 혀의 움직임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부드럽고 유연한 소리입니다.
- 3) 구개음(Palatals - 입천장소리): κ (카파), γ (감마), χ (키), ξ (크시) 혀 뒷부분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깊은 소리입니다.
- 4) 치음(Dentals - 이소리): δ (델타), θ (데타), τ (타우) 혀 끝이 윗니 뒤쪽에 닿으며 나는 단단한 소리입니다.

다. 한국인에게 독특한 헬라이어 발음 주의사항

- 1) χ (키): 경구개음으로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거칠게 굽히듯 나오는 소리입니다. 한글로는 '키'라고 표기하지만, 단순히 'k' 발음이 아니라 영어의 <chase>의 'ch'나 독일어의 'Bach'처럼 깊은 마찰음이 섞인 소리입니다.

라. 이중 자음의 구조와 영적 통찰

헬라이어 자음 중에는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진 이중 자음이

있으며, 그 어원 속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λ(람다): 쌍자음의 성격

- 사례: φιλῶ(필로=사랑하다) + σοφία(소피아=지혜)
= φιλοσοφία(필로소피아=철학)

[분석]: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본래 지혜를 사랑한다는 능동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철학이 아닌,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2) ξ(크시): [κ(카파)+σ(시그마)] 결합

- 사례: ξένος(크세노스=나그네, 낯선 자)

[예화]: 베드로전서 4:12에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이상히(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거주자)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ξένος(크세노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는 오히려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어디인지 증명해주는 훈장과 같습니다.

3) ψ(프시): [π(피)+σ(시그마)] 결합

- 사례 1: ψευδο(프슈도=가짜, 거짓) + προφήτης(프로페테스=선지자) = ψευδοπροφήτης(프슈도프로

페테스=거짓 선지자)

[분석]: προ(프로=앞에서) + φημί(페미=말하다)의 합성어인 선지자 앞에 '가짜'가 붙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문적으로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 사례 2: ψυχή(프쉬케=영혼)

성경 구절: "네 ψυχή(프쉬케=영혼)가 잘됨 같이..."(요삼 1:2)

[영적 적용]: 여기서 '잘됨'의 동사는 εὐοδοῦται(유오두타이)로, 현재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즉, 영혼이 잘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속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4. 구체적인 모음(Vowel) 학습

헬라이어 모음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를 넘어, 단어의 시제와 격을 결정하는 역동적인 영적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가. 모음의 종류와 성격

헬라이어 모음은 총 7개이며, 길이에 따라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입의 열림 정도에 따라 개모음과 폐모음으로 나눕니다.

- 단모음(Short Vowels): ε(엡실론), o(오미크론)는 항상 짧게 발음됩니다.
- 장모음(Long Vowels): η(에타), ω(오메가)는 항상 길게 발음됩니다.
- 공통모음: α(알파), ι(이오타), υ(웁실론)는 문맥에 따라 길거나 짧게 사용됩니다.
- 개모음(Open Vowels): α, ε, η, o, ω (폐가 열리며 나는 소리)
- 폐모음(Close Vowels): ι, υ (목과 폐가 닫히며 나는 소리)

나. 발음에 주의해야 할 모음: υ(웁실론)

υ(웁실론)은 한국어의 <위>에 가깝게 발음해야 원어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사례: κήρυγμα(케뤼그마)
(X) 케리그마 / (O) 케뤼그마
[의미]: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 강단에서 선포한 '복음의 선포'를 뜻합니다.

다. 이중모음(Diphthongs): 두 모음의 연합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대개 '개모음+폐모음'의 형식을 취합니다. 이중모음은 두 번째 모음 위에 기식이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 αι(아이): αἵρων(아이론) -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현.능.분) 어린 양 예수.
- ει(에이): εἰρήνη(에이레네) - "너에게 평화(εἰρήνη σοι)가 있을지어다."
- οι(오이): οἶκος(오이코스) - 하나님의 성전인 '집'.
- ου(우): οὐρανός(우라노스) - '하늘', Ἰησοῦς(이에수스) - '예수'. (오우/오위 X)

- ευ(유): εὐχαριστία(유카리스티아) -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인 '감사'. (에위 X)
- αυ(아우): αὐλή(아울레) - 양들의 안식처인 '우리'(천국 마당). (아위 X)
- υι(위): υἱός(휘오스) - 혈통에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

라. 음절(Syllable)의 형성과 원리

음절은 항상 자음으로 시작되며, 이는 가정을 형성하는 원리와 닮아 있습니다.

- 자음+모음 (남+여): γ(감마)+α(알파) = γα(가)
- 자음+모음+자음 (자녀의 탄생): γ(감마)+α(알파)+ν(뉴) = γαν(간)
- [연습]: γα(가), να(나), δα(다), ρε(레), γι(기), σο(소), ου(우) 등

마. 이오타 부기법(Iota Subscript)과 명사 여격

장모음(α, η, ω)이 ι(이오타)와 합쳐질 때, 이오타가 장모음 밑으로 숨는 현상입니다. 이는 100% 명사 여격(~에게, ~안에)으로 해석됩니다.

- α (알파 이오타 하기): σοφία(소피아) - 지혜에게
- η (에타 이오타 하기): ἀρχή(아르케) - 태초에
- ω (오메가 이오타 하기): λόγῳ(로고) - 말씀 안에

바. 기식(Breathing): 영혼의 숨표

모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 항상 기식이 붙습니다. 이중모음일 경우 두 번째 모음 위에 붙습니다.

- 강기식(Rough Breathing) (´): <ㅎ(h)> 소리가 납니다.
ἀμαρτία(하마르티아): 과녁을 벗어난 '원죄'.
ἥλιος(헬리오스): '태양'. (76년마다 지나는 헬리혜성의 어원)
ἡμέρα(헤메라): '날(Day)'.
- 연기식(Smooth Breathing) (`):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한국어의 '아버지'에서 소리 없는 '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 자음 ρ(로)의 특별한 강기식

자음 중 유일하게 ρ(로)에는 항상 강기식이 붙어 <ㅎㄹ> 발음이 납니다.

- ῥῆμα(흐레마): 주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레마의 말씀.
- ῥαββί(흐랍비): '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의 1인칭 접미어가 붙은 표현.
- ῥακά(흐라카): '라가(텅 빈 자)'라는 히브리 최고의 욕설.
- ῥίζα(흐리자): 여성명사로 '영혼의 뿌리'를 뜻합니다. 심판의 도끼가 놓인 인간 나무의 뿌리입니다.

5. 헬라어 알파벳 주의사항 및 악센트

헬라어 알파벳은 영어와 모양은 비슷하나 소리가 전혀 다른 글자들이 많으므로, 정확한 발음과 표기법을 숙지하는

것이 원어 연구의 기초입니다.

가. 모양은 비슷하나 소리가 다른 자음 (주의!)

- ρ(로): 영어의 'p'와 비슷하지만 'r' 발음입니다.
- π(피): 이것이 영어의 'p' 사운드입니다.
- ν(뉴): 영어의 'v'처럼 보이지만 'n(ㄴ)' 발음입니다. 헬라어에는 'v' 발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η(에타): 영어의 'n'처럼 보이지만 장모음 'e(에이)' 발음입니다.

나. 혼동하기 쉬운 자음 구별하기

- ξ(크시): 영어의 'x' 사운드입니다. (이중 자음: κ+σ)
- ζ(제타): 영어의 'z' 사운드입니다.
- ς(시그마): 단어의 끝에서만 사용하는 시그마의 형태입니다.
(X) λογος / (O) λογος(로고스)

다. 발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자음

- θ(데타): 우리말 'ㄷ'과 'ㅌ' 사이의 연한 소리로, 영어의 <th> 발음과 같습니다.
- λ(람다): 영어의 'l' 발음이며, 한글로는 'ㄹㄹ' 쌍자음으로 발음할 때 원어의 맛이 삽니다.
- μ(뮤): 우리말 'ㅁ' 발음입니다.
- σ(시그마):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는 σ를 사용합니다.
- ψ(프시): 'ps' 발음으로, 혀와 천장이 붙었다 떨어지는 파열음입니다. (이중 자음: π+σ)

라. 감마(γ) 비음 법칙: [ŋ(ㅇ)] 발음

자음 γ(감마)가 γ, κ, χ, ξ 앞에 올 때는 'ㄱ'이 아니라 영어의 '~ing'와 같은 [ㅇ] 비음으로 발음됩니다.

- γ + γ = [ŋ]: ἄγγελος(앙겔로스) - 천사, 메신저 / ἤγγικεν(앵기켄) - (가까이) 왔다(현완.능.직).

- $\gamma + \kappa = [\circ]$: ἀνάγκη(아낭케) - 억지로, 강제로 / ἄγκυρα(앙쿠라) - 영혼의 닻.
- $\gamma + \chi = [\circ]$: ἐγγρίω(앵크리오) - 안약을 바르다 (영안을 열라는 명령).
- $\gamma + \xi = [\circ]$: ἀπήγξατο(아펩크사토) -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았다(부과.중.직).

마. 영어와 헬라어의 차이점 (존재하지 않는 발음)

헬라어에는 영어의 특정 발음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대체되거나 이해해야 합니다.

- C, Q 사운드: 헬라어에는 없으며 부드러운 σ (시그마)나 강한 κ (카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 g, j 사운드: (giraffe나 joice의 발음)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 h(ㅎ) 사운드: 독립된 자음은 없으나, 단어 첫 머리 모음 위의 강기식(´)을 통해 'ㅎ' 소리가 구현됩니다.

- v, w 사운드: 헬라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 헬라어 악센트(Accent): 진리의 고저장단

악센트는 단어의 강조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애큐트(Acute) [´]: 예리하고 높게 발음합니다.
- 써컴플렉스(Circumflex) [~]: 낮으나 무겁고 길게 굴리며 발음합니다.
- 그레이브(Grave) [`]: 악센트가 있는 단어 뒤에 바로 다른 단어가 올 때 애큐트 대신 사용하며, 약간만 높게 발음합니다.

6. 익투스(ΙΧΘΥΣ)의 의미와 기원

익투스(ΙΧΘΥΣ)는 헬라어 본래 의미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땅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고기 모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이루는 다섯 개의 알파벳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을 담은 문자

조합(Acrostic)이었기 때문입니다.

가. 알파벳 하나하나에 담긴 신앙 고백

- 1) I (이오타): Ἰησοῦς (이에수스) * 의미: 예수 * [설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주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 2) X (키): 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 * 의미: 그리스도 * [설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발음 주의: '키'는 입천장 깊은 곳에서 나는 마찰음입니다.)

- 3) Θ (데타): Θεοῦ (데우) * 의미: 하나님의 * [설명]: Θεός(데오스=하나님)의 소유격 형태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혀줍니다.

- 4) Υ (웁실론): Υἱός (휘오스) * 의미: 아들 * [설명]: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발음 주의: '위' 사운드로 발음합니다.)

5) Σ (시그마): Σωτήρ (소테르) * 의미: 구원자 * [설명]: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구세주라
는 선언입니다.

나. 영적 해석과 적용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
자이십니다."
-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익투스(ΙΧΘΥΣ)를 고백하고 물
고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은 오직 이 고
백 위에 있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 Greek word
for "Fish"

Ιησοῦς = Jesus Χριστός = Christ Θεός = God
Υἱός = Son Σωτήρ = Savior

GREEK TO ENGLISH	Ι	Χ	Θ	Υ	Σ	TRANSLITERATION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i	ch	th	u	s		

Tom Eberhard
01-19-2002
christian_ich.cdr
<http://www.etheroad.com>





2 장

/

명사의 성, 수, 격의 체계

제 2 장 명사의 성, 수, 격의 체계

도입내용

헬라어 명사는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어미가 변하는 '굴절 언어'입니다. 단어의 위치가 아닌 '어미의 형태'가 의미를 결정하므로, 명사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성, 수, 격을 식별하는 것이 본문 해석의 핵심입니다.

1. 명사의 3요소 (Gender, Number, Case)

베들레헴 성경 앱에서 명사(Noun)를 터치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들입니다.

가. 성(Gender): 남성(M), 여성(F), 중성(N)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뿐만 아니라 문법적 분류를 포함합니다.

나. 수(Number): 단수(S)와 복수(P)로 나뉩니다.

다. 격(Case): 단어가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문법적 기능을 결정합니다.

2. 헬라어의 4격 체계와 신학적 기능

명사 어미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네 가지 격은 다음과 같은 의미적 영역을 담당합니다.

격 명칭	코드	문법적 기능	신학적/해석적 의의
주격 (Nominative)	N	문장의 주어 (~은/는/이/가)	행위의 주체, 존재의 본질 규명
소유격 (Genitive)	G	소유, 기원, 분리 (~의, ~로부터)	권위의 출처, 소속과 근거
여격 (Dative)	D	간접 목적어, 처소, 수단 (~에게, ~안에, ~로써)	관계의 대상, 사역의 영역과 방법
대격 (Accusative)	A	직접 목적어 (~을/를)	동작의 목적, 사역의 지향점

3. 명사 변화의 지표: 정관사(Article)

명사의 복잡한 어미 변화를 모두 암기하기 전에, 명사의 ' 신분증' 역할을 하는 정관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관사는 수식하는 명사와 성, 수, 격이 항상 일치하므로, 관사만 정확히 식별해도 명사의 격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탭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남성 단수 관사 및 명사 변화표]

(예시 단어: λόγος <로고스>)

격	관사 (읽기)	명사 어미	분석 예시 (읽기)	의미(해석)
주격	ὁ (호)	-ος	ὁ λόγος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주어)
소유격	τοῦ (투)	-ου	τοῦ λόγου (투 로구)	그 말씀의 (소유/기원)
여격	τῷ (토)	-ῳ	τῷ λόγῳ (토 로고)	그 말씀으로/에게 (수단/장소)
대격	τόν (톤)	-ον	τόν λόγον (톤 로곤)	그 말씀을 (목적어)





3 장

/

동사의 시제와 양태

제 3 장 동사의 시제와 양태

도입내용

헬라어 동사는 시제(Tense), 태(Voice), 법(Mood)에 따라 형태가 정교하게 변화합니다. 모든 변화표를 외우는 대신, 베들레헴 앱에서 제공하는 'T-V-M' 코드가 설교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1. 동사의 시제(Tense): 시간보다 중요한 '동작의 모습'

헬라어 시제는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말하는 이가 그 동작을 어떤 상태로 바라보느냐를 결정합니다.

격 명칭	코드	동작의 양상 (Aspect)	해석적/설교적 의미
현재 (Present)	P	진행, 반복, 지속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부정과거 (Aorist)	A	단회적, 발생 사실 자체	"역사적으로 ~했다" (가장 많이 사용)
미완료 (Imperfect)	I	과거의 지속적 시도, 습관	"과거에 계속 ~하고 있었다"

완료 (Perfect)	RP	과거에 완료된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됨	"이미 ~되어 그 효력이 지금도 유지된다"
--------------	----	----------------------	-------------------------

2. 동사의 태(Voice): 주체와 객체의 관계

동작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향해 일어나는지를 규명합니다.

태 명칭	코드	의미 및 기능	해석적 포인트
능동태 (Active)	A	주어가 직접 동작을 행함	주어의 주도적 사역 강조
수동태 (Passive)	P	주어가 동작의 영향을 받음	외부(주로 하나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중간태 (Middle)	M	주어가 자신을 위해 행함	주어의 인격적 참여와 결단

3. 동사 변화의 핵심 지표

동사의 복잡한 변화를 다 알 수 없으므로, 주요 특징들을 숙지하십시오.

가. 접두모음 (ε-): 단어 앞에 ε(엡실론)이 붙어 있다면 과거 시제(부정과거, 미완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 시제 접미사 (-σα): 단어 끝부분에 -사(sa)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대부분 부정과거(Aorist)입니다. 발생한 사실 그 자체를 선포할 때 사용됩니다.

4. 동사 분석 코드 읽는 법

베들레헴성경 앱에서 동사를 터치하면 [품사 / 법 / 시제 / 태 / 인칭 / 수] 순서로 정보가 나옵니다. 이 암호를 해독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용어	앱 표기 예시	의미와 해석의 초점	해석적 포인트
품사	동	동사 (Verb)	주어의 주도적 사역 강조
법	직설	직설법 (실제 일어난 사실을 진술)	외부(주로 하나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시제	완료 / 부정과거 / 현재	동작이 어떤 상태인가 (지속, 단회, 성취)	주어의 인격적 참여와 결단

태	능동 / 수동 / 중간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행함, 받음)	
인칭/수	3인 단수	주어의 신분 (그/그녀/그것이)	

5. 실전 분석

베들레헴 앱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Τετέλεσται < 테텔레스타이> (기본 τελέω 텔레오)을 가지고 분석해 봅니다. 이 단어는 "동작설 완료 수동 3인 단수"로 되었으며 뜻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 ① 동(사)의 의미: 정지된 상태가 아닌 '역동적인 사역' '동'은 품사가 동사(Verb)임을 나타냅니다.

해석: 구원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어드셔서 행하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관념적인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 ② 직설(법)의 의미: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의 선포
직설법은 가상이나 가정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때 사용됩니다.

해석: 주님의 선언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소망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 값을 치르는 대속의 사건이 역사라는 실제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집행되었음을 문법적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적 실재성을 확신시켜 줍니다.

- ③ 완료(시제)의 의미: 영원히 유지되는 구원의 효력 헬라어 완료 시제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그대로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해석: 주님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끝내신 것(과거)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취의 효력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성취된 상태’로 유효합니다. 즉, 보수 공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④ 수동(태)의 의미: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주권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수동태로 쓰일 때, 이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나타내는 '신적 수동태'가 됩니다.

해석: 인류 구원의 거대한 설계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구속의 경륜'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증명합니다.

- ⑤ 3인(칭)의 의미: 객관적 실체로서의 구원 계획 동작의 주체가 나(1인칭)나 너(2인칭)가 아닌 제3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해석: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The Work)'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주님은 개인의 감정을 토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법도와 목적이 객관적인 실체로서 완전히 달성되었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 ⑥ 단수(수)의 의미: 유일하고 집중된 단번의 성취 여러 사건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건을 지칭합니다.

해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위대한 제사'가 과녁에 명중하듯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저것 흩어진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단 한 번의 사역이 단번에(Once for all)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ἔλαβον<엘라본> (기본 λαμβάνω 람바노)을 분석해 봅시다. 이 단어는 "동작설 부정과거 능동 3인 복수"로 되었으며 뜻은 '영접하였으니'입니다.

- ① 동(사)의 의미: 실천적 수용으로서의 신앙 '동'은 품사가 동사(Verb)임을 나타냅니다.

해석: 영접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 안으로 주님을 '모셔들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 ② 직설(법)의 의미: 신분 변화의 확실한 실재성 직설법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합니다.

해석: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명백한 사실임을 선포합니다.

- ③ 부정과거(시제)의 의미: 예루살렘성경에서는 '과거'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부정과거'이빈다. 이것은 단회적 결단과 즉각적 변화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단회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해석: 신분의 변화는 오랜 수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찰나의 결단이 있었던 '그때', 즉각적이고 영원한 신분적 전환이 일어났음을 문법적으로 증명합니다.

- ④ 능동(태)의 의미: 인격적 응답과 책임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동작을 행하는 주체임을 나타냅니다.

해석: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복음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은 인간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인 주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⑤ 3인(칭)의 의미: 보편적인 구원의 수혜자들 나나 너를 넘어선 제3의 대상들을 지칭합니다.

해석: 혈통이나 육정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듣고 반응한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 ⑥ 복수(수)의 의미: 허다한 무리를 향한 약속 단수가 아닌 여러 사람을 지칭합니다.

해석: 구원의 은혜가 단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를 영접하는 무리 전체에게 풍성하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포함됨을 강조합니다.

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파라클레데손타이> (기본 παρα 카레오 파라칼레오)를 분석해 봅니다. 이 단어는 "동직설 미래 수동 3인 복수"로 되었으며 뜻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입니다.

- ① 동(사)의 의미: 실제적인 회복의 사역 '동'은 품사가 동사(Verb)임을 나타냅니다.

해석: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슬픈 마음을 달래는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역동적인 사역임을 뜻합니다.

- ② 직설(법)의 의미: 장차 임할 약속의 확실성 직설법은 사실에 기초한 확정적 진술입니다.

해석: 애통하는 자에게 임할 위로는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 사실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정된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 ③ 미래(시제)의 의미: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 미래 시제

는 앞으로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해석: 현재의 애통함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다가올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종말론적 소망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 ④ 수동(태)의 의미: 위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결과를 외부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 이 구절의 핵심으로, 이른바 '신적 수동태'입니다.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스스로 쟁취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문법적으로 확증합니다.

- ⑤ 3인(칭)의 의미: 약속의 대상을 향한 지명 3인칭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제외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해석: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아픔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애통을 품

은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 ⑥ 복수(수)의 의미: 남겨진 자들을 향한 공동체적 축복
복수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대상을 나타냅니다.

해석: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어느 한 사람의 독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애통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거룩한 백성에게 풍성하고도 공통적으로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ἔρχεται <에르케타이> (기본 ἔρχομαι 에르코마이)를 분석해 봅니다. 이 단어는 "동직설 현재 중수디포 3인 단수"로 되었으며 뜻은 '오느니라'입니다.

- ① 동(사)의 의미: 구원을 향한 실제적 움직임

해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관념적인 동의나 종교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 실제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역동적인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② 직설(법)의 의미: 유일한 길의 사실적 선포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진리가 가설이나 철학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된 명백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냅니다.

③ 현재(시제)의 의미: 지금도 열려 있는 구원의 통로

해석: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든지 그 '길'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④ 중수디포(중간수동디포넌트)의 의미: 주권적 이끌림과 인격적 응답의 신비

해석: 중수디포는 형태상 중간태와 수동태의 성격을 모두 가지면서 의미는 능동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성령의 주권적인 이끄심에 의한 것이며(수동적 측면), 동시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자기 자신의 발로 나아가는 인격적 결단(중간태적 측

면)이 신비롭게 결합된 '능동적 사역'임을 문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와 중간태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능동태로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수동)과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중간)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일어나는 복음의 신비로운 성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⑤ 3인(칭)의 의미: 보편적 인간을 향한 지칭

해석: 성별, 민족, 신분을 막론하고 주님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누구든지)'을 객관적으로 지목합니다. 주님은 예외 없는 구원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⑥ 단수(수)의 의미: 하나님 앞에서의 개별적 단독자

해석: 구원은 단체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결단해야 하는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마.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 ἀπειψατο <아페넵사토> (기본 ἀπονίπτω 아포넵토)를 분석해 봅니다. 이 단어는

"동직설 과거 중간 3인 단수"로 되었으며 뜻은 '(손을) 씻으며'입니다.

① 동(사)의 의미: 책임 회피를 위한 구체적 행위

해석: '동'은 품사가 동사(Verb)임을 나타냅니다. 빌라도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대야를 가져와 손을 씻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보여줍니다.

② 직설(법)의 의미: 역사적 과오의 기록

해석: 직설법은 역사 속에 기록된 객관적 사실을 뜻합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이 비겁한 행동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지워질 수 없는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③ 과거(시제)의 의미: 결정적인 책임 전가의 순간

해석: 앱에서 '과거'로 표기된 이 시제는 헬라어의 부정과거(Aorist)를 의미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그 순간, 단 한 번의 손 씻는 행위를 통해 주님의 죽음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단절하려 했던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시점을 지칭합니다.

④ 중간(태)의 의미: 자신을 위한 이기적 사역

해석: 중간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for himself)'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빌라도가 단순히 위생을 위해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이 담긴 행동을 문법적으로 고발합니다.

⑤ 3인(칭)의 의미: 심판대 앞의 한 개인

해석: 로마 총독이라는 거창한 직함 뒤에 숨은 '그 사람(빌라도)'을 인격적으로 지목합니다.

⑥ 단수(수)의 의미: 회피할 수 없는 단독자의 책임

해석: 무리가 요구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결단하고 손을 씻은 책임은 빌라도 '한 사람'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은 언제

나 단독자로서 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6. 부정과거(Aorist)와 미완료 과거(Imperfect)의 차이

헬라어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베들레헴 앱은 주로 '과거'와 '미완'이라는 코드로 이를 구분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언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동작의 모양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가. 부정과거 (Aorist, 앱 코드: 과거)

'부정(不定)'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동작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점으로 묶어 '단회적'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시제는 없고 모든 과거가 '부정과거'입니다.

- 관점: 멀리서 찍은 한 장의 '사진'과 같습니다.
- 특징: 동작의 과정이나 반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합니다.
- 설교적 응용: "단번에(Once for all) 일어난 구속의 사

건"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 예: 요 1:12 ἔλαβον (영접하였다) - 여러 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결정적인 한 순간을 포착합니다.

나. 미완료 과거 (Imperfect, 앱 코드: 미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동작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 관점: 가까이서 찍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 특징: 동작이 과거에 계속 진행 중이었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었거나, 혹은 시도했으나 끝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설교적 응용: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나, 인간의 끈질긴 저항 또는 반복적인 습관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 예: 막 15:23 ἐδίδου <에디둔> (주었으나) -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한 번 준 것이 아니라, 마시게

하려고 계속해서 권하고 시도했던 집요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구분	부정과거 (Aorist)	미완료 과거 (Imperfect)	해석적 포인트
앱 코드	과거	미완	주어의 주도적 사역 강조
이미지	점 (●) 단회적 사건	선 (-) 지속적 과정	외부(주로 하나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핵심 의미	사건의 발생 사실 (발생)	사건의 진행 상태 (지속/반복)	주어의 인격적 참여와 결단
해석의 묘미	"단번에 ~했다"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했다"	

7. 완료 vs 미완 (미완료 과거)의 구분

앱 코드에서 '완료'와 '미완'은 동작이 이미 끝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가. 완료 (Perfect, 앱 코드: 완료)

동작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완벽하게 끝났고, 그 결과나 상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미지: '열매' 혹은 '고정된 상태'입니다.
- 해석의 묘미: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다."
- 본문 적용 (마 15:23): 병사들이 예수님께 드리기 전, 이미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그 성분이 완벽하게 배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즉석에서 탄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나. 미완 (Imperfect, 앱 코드: 미완)

과거의 어느 시점에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거나 반복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이미지: '흐르는 물' 혹은 '진행 중인 동작'입니다.
- 해석의 묘미: "과거에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 본문 적용 (마 15:23): 병사들이 몰약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계속해서(반복적으로) 권하고 있었다'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낼 때 이 시제(ἐδίδου, 미완)를 씁니다.

다. 마가복음 15:23의 시제 조화

한 구절 안에 이 두 시제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앱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 ἐσμυρνισμένον <에스뮴르니스메논> (기본 σμυρνίζω 스뮴르니조) → 동분사 완료 수동 대격 남성 단수 : 몰약을 탄

해석: 이미 몰약이 완벽하게 섞여서 그 효능이 고정된 '상태'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잔은 이미 그 순간으로 완료되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ἐδίδουν <에디둔> (기본 δίδωμι 디도미) → 동직설 미완 능동 3인 복수 : 주었으나

해석: 병사들은 그 준비된 잔을 예수님께 미완(계속해서) 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완료된 고난의 잔'을 거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7. 중간태와 디포넌트 구분

헬라어의 태는 단순히 '하느냐, 당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가. 중간태 (Middle): "자신을 위한 인격적 참여"

- 대상 구절: 마태복음 27:24 (빌라도의 손 씻기)
" [마 27:24]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 ἀπενίψατο <아페닙사토> (기본 ἀπονίπτω 아포닙토)
→ 동직설 과거 중간 3인 단수 : (손을) 씻으며
- 분석: 이 단어는 수동태가 아닌 중간태입니다. 빌라도가 단순히 위생을 위해 손을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Middle)' 결백을 증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려는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목적을 위해 행한 일임을

문법적으로 고발합니다.

- 설교적 포인트: 중간태는 동작의 화살표가 주어 자신을 향합니다. 빌라도의 손 씻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인본주의적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나. 중간디포 (Middle Deponent): "자발적인 순종과 사역"

- 대상 구절: 마태복음 16:24 (자기를 부인하고)
"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 ἀπαρνησάσθω <아파르네사스토> (기본 ἀπαρνέουαι 아파르네오마이) → 동명령 과거 중간디포 3인 단수 : 부인하고
- 분석: 형태는 중간태이지만 의미는 능동인 중간디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된 자가 자신의 의지를 다해 '자발적으로(Middle Deponent)' 내려놓아야 하는

능동적 사역임을 뜻합니다.

- 설교적 포인트: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중간디포의 시제는 성도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부인하는 인격적이고 주도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다. 수동디포 (Passive Deponent): "강권적인 은혜 속의 반응"

- 대상 구절: 마태복음 2:12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 [마 2:1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 χρηματισθέντες <크레마티스덴테스> (기본 χρηματίζω 크레마티조) → 동분사 과거 수동디포 주격 남성 복수 : 지시하심을 받아
- 분석: 형태는 수동태이지만 의미는 능동인 수동디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단순히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음을 보여줍니다.

- 설교적 포인트: 수동태의 옷을 입은 이유는 계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능동의 의미(디포)를 갖는 이유는 그 계시에 반응하여 길을 떠나는 박사들의 적극적인 신앙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 중수디포 (Middle-Passive Deponent): "주권과 응답의 연합"

- 대상 구절: 요한복음 14:6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ἔρχεται <에르케타이> (기본 ἔρχομαι 에르코마이)
→ 동직설 현재 중수디포 3인 단수 : 오느니라
- 분석: 현재 시제에서 중간태와 수동태의 형태가 같기에 앱에서는 중수디포로 표기합니다.
- 설교적 포인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

령의 이끄심(수동적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동시에 그 이끄심에 응답하여 우리 발로 걸어가는(중간태적 배경) 신비로운 연합 사역입니다. "오게 되는 것"과 "스스로 오는 것"이 한 단어 안에 녹아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앱 표기 코드	문법적 특징	성경적 의미의 핵심	설교적 적용 질문
중간	주어 자신을 위해 행함	인격적 참여, 주관적 목적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중간디포	중간태 형태 + 능동 의미	주체의 자발적 의지 강조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인가?"
수동디포	수동태 형태 + 능동 의미	외부적 원인에 의한 능동적 반응	"주어지는 은혜에 응답하는가?"
중수디포	중간/수동 형태 + 능동 의미	신적 주권과 인간 의지의 연합	"성령의 견인 속에 응답하는가?"

7. 구속사적 진리: 시제 속에 담긴 구원의 확신

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부정과거) 제물이 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미완료) 부어주고 계십니다.

-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

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이루셨다'는 부정과거(앱 표기: 과거)입니다.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완벽한 과거 사건임을 선언합니다.

- 사도행전 2:47: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더하게 하시니라'는 미완료(앱 표기: 미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조종하여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수동)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화되어 기쁘게 응답하고 참여하는 자(중간/능동)가 되길 원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 하나인 '자유의지'는 문법의 태(Voice)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만약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적 집행이었다면 성경은 모든 구원 사역을 단순 수동태로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간태와 디포넌트라는 정교한 장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인격과 만나 자발적인 순종으로 꽃피우게 되는지를 보여

춥니다.

- 중간태는 동작의 결과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통해,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경건의 사역이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만족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디포넌트 계열의 태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지만(수동적 배경),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소화되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헌신(능동적 응답)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문법에 나타난 태의 신비는 우리를 인격적인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능동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4 장

/

전치사와 접속사

제 4 장 전치사와 접속사

도입내용

성경 헬라어에서 전치사와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잇는 '영적인 관절'과 같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문장의 몸체를 구성한다면, 전치사와 접속사는 그 몸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건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1. 전치사(Preposition): 은혜가 흐르는 방향과 위치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여 그 명사가 처한 공간적 위치나 동작의 방향을 규정합니다. 헬라어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격(Case)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므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ἐν <엔> (역격 지배): "~안에", "~을 통하여"

요한복음 15장의 '내 안에 거하라'에서 사용된 이 전치사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뜻합니다. 그

리스도라는 공간 안에 머물 때만 생명이 공급됨을 보여줍니다.

나. εἰς <에이스> (대격 지배): "~안으로", "~를 향하여"

마태복음 28:19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으로) 세례를 주고'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단순히 훗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들어가는 역동적인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다. διὰ <디아> (소유격: "~을 통하여" / 대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소유격)' 구원을 얻는 것은 주님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심을 뜻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대격)'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임을 보여줍니다.

2. 접속사(Conjunction): 진리를 묶어주는 논리의 띠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합

니다. 베들레헴 성경 앱에서 이 짧은 접속사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가. **καί <카이>**: "그리고", "또한", "심지어"

단순한 연결을 넘어, 앞선 내용에 무게를 더하거나 예기치 못한 대상을 포함할 때(심지어 ~조차도) 사용되어 은혜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나. **δέ <데>**: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문장 흐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뒤에 '그러나(δέ)' 시작되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추적하게 합니다.

다. **γάρ <가르>**: "왜냐하면"

앞서 선포된 진리나 명령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논리적 근거를 밝혀줍니다.

라. **οὖν <운>**: "그러므로"

앞선 모든 교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3. [종합 분석 사례] 로마서 5장 1절

δικαιω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ὸν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 οὖν <운> (그러므로): 앞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칭의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 ἐκ <에크> (소유격 지배: ~로부터): 의로움의 출처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시합니다.
- πρὸς <프로스> (대격 지배: ~와 함께, ~를 향하여): 하

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화평임을 나타냅니다.

- διά <디아> (소유격 지배: ~를 통하여): 이 모든 화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확정합니다.

4. 구속사적 진리:

전치사와 접속사는 성경의 단어들이 제각각 흩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사랑의 띠'입니다. 하나님은 전치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향을 정하셨고, 접속사를 통해 우리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늘의 논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앱에서 이 작은 연결고리들을 찾아낼 때, 우리는 파편화된 구절이 아닌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게 됩니다.

전치사	지배 격	핵심 의미	구속사적 진리 및 적용
ἐν <엔>	역격	~안에 (In)	연합: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과 안식

εἰς <에이스>	대격	~안으로 (Into)	침투: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역동 적 변화
ἐκ <에크>	소유격	~로부터 (Out of)	분리: 죄와 세상으로부터 불 러냄을 받은(에클레시아) 존 재의 기원
πρός <프로스>	대격	~를 향하여 / ~와 함께	인격: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διὰ <디아>	소유격	~을 통하여 (Through)	통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 한 중보를 통한 구원의 길
	대격	~때문에 (Because of)	근거: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
ὑπέρ <히페르>	소유격	~를 위하여 (For)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 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
	대격	~위에 / ~을 넘어서	초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μετά <메타>	소유격	~와 함께 (With)	동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 나님
	대격	~후에 (After)	소망: 고난 후에 찾아올 영원 한 영광과 부활의 소망
ἀπό <아포>	소유격	~로부터 (From)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5 장

/

어휘와 어원 찾기

제 5 장 어휘와 어원 찾기

도입내용

성경의 단어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응축된 '진리의 결정체'입니다. 베들레헴 성경 앱에서 단어의 기본형(Lemma)을 클릭하여 그 어원과 유래를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흙 속에 묻힌 보석을 캐내어 그 본연의 광채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1. 단어의 뿌리(Root)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

헬라어 단어는 그 뿌리가 되는 어원을 알 때 비로소 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세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 복음: εὐαγγέλιον <유안겔리온>

- 어원 분석: '좋은'을 뜻하는 εὖ <유>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뜻하는 ἄγγελος <안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다.

- 구속사적 진리: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조언 (Advice)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가져온 것과 같은 '기쁜 소식(News)'임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 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

- 어원 분석: '~밖으로'를 뜻하는 ἐκ <에크>와 '부르다'를 뜻하는 καλέω <칼레오>에서 유래했습니다.
- 구속사적 진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의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소속'이 아닌 '부르심'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 동의어의 미세한 차이: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

성경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하

여 사용함으로써 진리의 깊이를 더합니다. 스트롱 번호 (Strong's Number)를 통해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 사랑: ἀγάπη <아가페> vs φιλία <필리아>

- 차이 분석: '아가페'는 조건 없는 신적 사랑을, '필리아'는 인간적인 우정과 애정을 뜻합니다.
- 요한복음 21장 사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아가페)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필리아)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한 것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자의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을 시제의 변화만큼이나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 새롭다: νέος <네오스> vs καινός <카이노스>

- 차이 분석: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방금 생긴 새것을 뜻하고, '카이노스'는 본질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 구속사적 진리: 고린도후서 5:17의 '새로운(카이노

스) 피조물'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 심층 분석 사례: 복음적 인사의 신학적 배경

성경 서신서의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헬라어 단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이방 세계의 헬라식 인사와 유대 세계의 히브리식 인사를 복음 안에서 통합한 역사적·신학적 선포입니다.

가. χάρις <카리스> (은혜)와 εἰρήνη <에이레네> (평강)

1) 두 단어는 어원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결합은 아니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저자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사용된 대표 구절들:

- 로마서 1:7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χάρις <카리스>)와 평강(εἰρήνη

<에이레네>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 에베소서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χάρις <카리스>)와 평강(εἰρήνη <에이레네>)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 데살로니가후서 1: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χάρις <카리스>)와 평강(εἰρήνη <에이레네>)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3) 단어 해석

(1) χάρις <카리스>: [이방인을 향한 복음적 변용]

- 언어적 배경: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의 χαίρω <카이로>에서 유래한 헬라식 일반 인사 "카이레"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 구속사적 의미: 세상의 인사가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이라면, 성경의 '카리스'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 (Favor)'가 모든 구원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2) εἰρήνη <에이레네>: [유대인의 소망을 담은 성취]

- 언어적 배경: 구약의 히브리어 인사말인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 구속사적 의미: 단순한 평화를 넘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묶여 누리는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4) 구속사적 연결: 왜 '은혜'가 항상 앞서는가? 성경은 예외 없이 '은혜(카리스)'를 먼저, '평강(에이레네)'을 그 뒤에 배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의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먼저 임할 때만,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평강이 뒤따라온다는 복음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즉, 은혜는 원인이며 평강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결과입니다.

나. 진리와 사랑: ἀλήθεια <알레데이아> & ἀγάπη <아가페>

- 1)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ἀληθεύοντες <알레듀온테스>)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 2) 이 두 단어의 관계는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방식'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 ἀλήθεια <알레데이아> (진리): 헬라적 배경에서 '숨겨진 것이 드러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절대 기준을 의미합니다.
- ἀγάπη <아가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희생을 뜻합니다.

3) 복음적 결합: 진리만 있으면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4:15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진리)을 하여"라는 표현처럼, 이 둘의 결합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죄인을 품으시는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4) 구속사적 연결: 진리는 구원의 '기준'이고 사랑은 구원의 '방식'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며,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이 둘이 결합되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 믿음과 순종: πίστις<피스티스> & ὑπακοή<휘파코에>

1) 로마서 1: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ὕπακοὴν πίστεως <휘파코엔 피스테오스>) 하나니"

2) 이 관계는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하나로 묶이는지 보여줍니다.

- πίστις <피스티스> (믿음): 전적인 신뢰와 맡김을 뜻하며,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복음의 핵심 수단입니다.
- ὑπακοή <휘파코에> (순종): '~아래에서'를 뜻하는 ὑπό<휘포>와 '듣다'를 뜻하는 ἀκούω<아쿠오>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아래 거하는 태도입니다.

3) 복음적 결합: 로마서 1:5에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이며, 순종은 그 뿌리에서 맺히는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격적인 순종으로 결합된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4) 구속사적 연결: 믿음은 구원의 '뿌리'이며 순종은 그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믿음의 순종),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라. 영광과 고난: δόξα <독사> & πάθημα <파데마>

- 1) 로마서 8: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παθήματα <파데마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δόξαν <독산>)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 2) 이 단어들은 성도의 '소망'과 성도가 처한 '현실'의 역설적 결합을 보여줍니다.
 - δόξα <독사> (영광): 본래 '광채'나 '무게감'을 뜻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 πάθημα <파데마>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시련과 아픔을 뜻합니다.
- 3) 복음적 결합: 로마서 8:18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고난과 영광을 반대로 보지만, 성경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Cross before Crown)'이라는 논리로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 성도의 인

내를 격려합니다.

- 4) 구속사적 연결: 세상은 고난과 영광을 대립 관계로 보지만, 복음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논리를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십자가)을 통해 영광(부활)에 이르셨듯, 성도의 삶에서도 이 둘은 뗄 수 없는 구속사적 순서임을 보여줍니다.

바. 은혜와 진리: χάρις <카리스> & ἀλήθεια <알레데이아>

>

- 1)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χάριτος <카리토스>)와 진리(ἀληθείας <알레데이아스>)가 충만하더라"
- 2) 이 관계는 죄의 '진단'과 죄의 '치료'라는 인과관계를 완성합니다.
- νόμος <노모스> (율법): 거울과 같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 εὐαγγέλιον <유앙겔리온> (복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3) 복음적 결합: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며, 복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주님이 대신 이루셨음을 선포합니다. 율법(원인 제공) → 복음(해결)이라는 구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4) 구속사적 연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핵심 단어입니다. 율법의 요구인 '진리'를 '은혜'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충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증명합니다.





6 장

/

원어해석을 통한 설교 잘하기

제 6 장 원어해석을 통한 설교잘하기

도입내용

성경 원어는 단순한 언어적 도구를 넘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본 장에서는 헬리어 문법의 미세한 차이가 어떻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지 50가지 실전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문법의 '태(Voice)'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가.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 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스타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분석]: 이 단어는 '완성하다'는 뜻의 동사 완료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번역 속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이 '수동태'에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로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수용하여 '성취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화]: 구원은 인간이 무언가를 보태어 완성하는 '협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 사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상업적으로 '완불되었다'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부채를 주님이 수동태의 순종으로 완전히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무언가를 더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다 이루어진 은혜의 바다에 몸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는 복음의 안식을 선포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11:28 <쉬게 하리라> : ἀναπαύσω <아나파우소>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석]: 동직설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수동태나 중간태를 쓰지 않으시고 강력한 '능동태'를 사용하셨습니다. '쉬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쉬게 만들겠다'는 주권적 의지입니다.

[예화]: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쉬게'라는 결심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강제로 쉬게 해주는 강력한 손길입니다. 주님은 능동태를 통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십니다. 안식의 주체가 인간의 환경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강조하십시오. 쉴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능동적인 초대를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다. 마태복음 16:24 <부인하고> : ἀπαρνησάσθω <아파르네사스토>

성경 구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분석]: 동명령 과거 중간디포(Middle Deponent) 3인칭 단수입니다. 중간태는 행동의 결과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자기 부인은 억지로 당하는 수동적인 고문이 아니라, 제자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적극적 선택입니다.

[예화]: 자기 부인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나(자아)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나를 찾는 복된 과정입니다. 중간태적 성격은 이 선택이 결국 제자 본인에게 가장 큰 영적 유익과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비우는 수고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값진 보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룩한 투자임을 전하십시오.

라. 마태복음 2:12 <지시하심을 받아> : χρηματισθέντες <크레마티스덴테스>

성경 구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분석]: 동분사 과거 수동디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형태는 수동태이나 의미는 능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그 계시를 듣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능동적인 반응이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수동)'. 그러나 그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떠나는 것은 그들의 '결단(능동)'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의 방향을 즉각 수정하여 걷기 시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은혜의 수동성과 순종의 능동성이 만날 때 일어나는 삶의 반전을 설교하십시오.

마. 요한복음 14:6 <오느니라> : ἔρχεται <에르케타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석]: 동직설 현재 중수디포 3인칭 단수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동작에 중수디포(중간태/수동태 혼합)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견인(수동)과 성도의 전인격적 의지(중간)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신비임을 보여줍니다.

[예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은 우리가 직접 내디려야 합니다. 구원은 기계적인 납치가 아니라 인격적인 초청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앞에 기쁨으로 받을 때는 성도의 연합을 이 '태'의 신비를 통해 풀어내십시오.

2. '시제'의 차이를 통해 신앙의 현재성을 강조하라

가. 요한복음 1:12 <영접하였으니> : ἔλαβον <엘라본>

성경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석]: 동직설 과거(부정과거/Aorist)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확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접은 반복되는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순간 이미 찍힌 '영원한 점'입니다.

[예화]: 많은 성도가 내 기분이 우울하면 구원이 흔들린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엘라본>은 당신의 구원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임을 보증합니다. 도장은 이미 찍혔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 자체를 없앨 수 없듯이, 이미 확정된 구원의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과거에 이미 완료된 복음의 확신을 선포하십시오.

나. 사도행전 2:47 <더하게 하시니라> : προσετίθει <프로세티데이>

성경 구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분석]: 동직설 미완료(Imperfect)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선'의 개념입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화]: 성령의 역사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프로세티데이>는 어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특별한 날에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이 시제를 통해 묘사하십시오.

다. 로마서 5:1 <화평을 누리자> : ἔχομεν <에코멘>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분석]: 동직설 현재(Present)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화평은 죽어서 천국 갈 때 받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성도가 누려야 할 실제적인 권리입니다.

[예화]: 은행 계좌에 돈이 가득해도 쓰지 않으면 가난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제인 <에코멘>은 그 화평의 통장을 지금 당장 꺼내어 쓰라는 주님의 독촉입니다. 삶의 풍랑 한복판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신앙의 현재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강조하십시오.

라. 히브리서 9:12 <이루셨느니라> : εὐράμενος <휴라메노스>

성경 구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분석]: 동분사 과거(부정과거) 중간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여기서 부정과거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효

력을 영원히 끝내버린 '단회적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중간태는 주님께서 스스로 그 희생을 자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화]: 구약의 제사장은 매번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의 모든 절차를 폐기하셨습니다. <휴라메노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내신 이 속죄가 얼마나 완전하고 다시는 손댈 필요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단번에 끝났다"는 십자가의 충족성을 선언하십시오.

마. 고린도후서 5:17 <되었도다> : γέγονεν <게고넌>

성경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지

금도 유효한 신분입니다.

[예화]: 우리는 가끔 옛 자아의 모습이 보일 때 "나는 여전히 옛날 사람인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고넨>을 통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완료 시제는 사단도, 세상도, 심지어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 판결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분보다 성경이 완료 시제로 선포한 '나의 새로운 신분'을 더 신뢰하라고 전하십시오.

3. '어원'의 깊이를 통해 진리의 본질을 시각화하라

가. 마태복음 16:18 <교회> : 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

성경 구절: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석]: 밖으로 뜻하는 <에크>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구정물 통에 담긴 보석을 주인이 손을 넣어 건져 올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유행, 죄의 습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소속이 아님을 이 어원을 통해 강력히 가르치십시오. 불러냄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도전을 주십시오.

나. 요한복음 8:32 <진리> : ἀλήθεια <알레데이아>

성경 구절: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석]: 부정어 <아>와 숨기다 혹은 잊어버리다를 뜻하는 <란다노>의 합성어입니다. 즉, '감추어졌던 것이 덮개가 벗겨져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화]: 인간은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과 자기 자

신의 비참한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오면
덮개가 열립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먼지가 드
러나듯, 진리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정직하게 마주
하게 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목격하는 '
노출'입니다. 이 정직함이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함
을 설교하십시오.

다. 요한복음 1:14 <거하시매> : ἐσκήνωσεν <에스케노센>

성경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석]: 장막 혹은 텐트를 뜻하는 <스케네>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혹은 '텐트
를 치고 사신다'는 뜻입니다.

[예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닙
니다. 이 땅의 먼지 날리고 비바람 치는 우리 삶의 한
복판에 당신의 텐트를 가져오셔서 우리 옆에 나란히
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고통 소리를 문 밖에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텐트 아래서 함께 숨 쉬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친밀한 임재를 이 장막의 언어로 묘사하십시오.

라. 마가복음 1:15 <복음> : εὐαγγέλιον <유앙겔리온>

성경 구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분석]: 좋은을 뜻하는 <유>와 소식 혹은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승전고를 전하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지침(Advice)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다'는 소식(News)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이 보낸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 이제 안심하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 설교는 사람들을 채찍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그 승리를 누리게 하는 잔치여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마. 히브리서 11:1 <실상> : ὑπόστασις <히포스타시스>

성경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분석]: 아래에를 뜻하는 <히포>와 서다를 뜻하는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즉, '어떤 건물 아래를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초나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예화]: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바닥'으로 삼는 것입니다. 건물이 기초 위에 서 있듯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단한 암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흔들려도,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히포스타시스>인 말씀이 견고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설교하십시오.

4. '전치사(Preposition)'의 역동성을 통해 신앙의 방향성을 정립하라

가. 요한복음 1:1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πρὸς τὸν θεόν <프로스 톤 데온>

성경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석]: 여기서 '함께'로 번역된 전치사(Preposition) <프로스>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Face to face)'라는 강한 방향성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예화]: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단 한 순간도 떼지 않고 응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풍랑과 유혹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 즉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의 안테나를 고정하는 것이 참된 동행임을 선포하십시오. 시선의 방향이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나. 에베소서 2:1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엔 크리스토 예수>

성경 구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석]: 전치사(Preposition) <엔>은 '영역'과 '위치'를 나타냅니다. 성도의 모든 가치와 능력은 예수라는 영역 '안'에 머물 때만 유효하다는 영적 경계(Sphere of influence)를 설정합니다.

[예화]: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하십시오. 물고기에게 물은 구속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자유는 곧 죽음입니다. 성도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갑갑한 종교적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생명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화려함을 찾기보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강조하십시오.

다. 마태복음 28:19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εἰς τὸ ὄνομα α <에이스 토 오노마>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석]: <에이스>는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운동감을 가진 전치사(Preposition)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을 적시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 '안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예화]: 흰 천을 빨간 물감 통에 푹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천은 물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색깔과 하나가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존재입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임을 선언하십시오.

라. 갈라디아서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 ἄπ' ἀνθρώπων <아프 안드로폰>

성경 구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분석]: <아포>는 원천이나 출발점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Preposition)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인간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예화]: 강물은 산 위의 근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근원이 오염되었다면 강물도 오염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직분은 사람의 비위나 평가라는 낮은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늘의 소명을 따라 걷는 당당함을 촉구하십시오.

마. 로마서 11:36 <주에게서 나오고> : ἐξ αὐτοῦ <엑스 아우투>

성경 구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분석]: <엑스>는 내면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기원'을 뜻하는 전치사(Preposition)입니다. 우주 만물의

DNA 안에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화]: 예술가의 작품 속에 작가의 혼이 담겨 있듯이, 당신의 인생과 이 우주 모든 조각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튀어나온 걸작입니다. 내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존재의 가벼움은 사라지고 거룩한 무게감이 생겨납니다.

5. '분사(Participle)'의 동시성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설교하라

가. 사도행전 16:6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 κωλυθέντες <콜뤼덴테스>

성경 구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분석]: 동분사(Participle) 과거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이 성령에 의해 '막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예화]: 때때로 우리의 선한 계획과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분사(Participle)의 수동태는 그 막힘이 실패가 아니라 성령의 적극적인 '간섭'임을 보여줍니다. 내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유럽 선교)이 시작되는 동시적 시점임을 가르치십시오.

나. 마태복음 28:19 <가서> : πορευθέντες <포류덴테스>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석]: 동분사(Participle) 과거 수동디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주동사인 '제자 삼으라'를 수식하며, '이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길을 떠나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화]: 선교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순간이 이미 '파송'의 과정입니다. 분사(Participle)의 시제는 제자 삼는

일과 우리가 움직이는 삶이 별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는 그 걸음이 곧 선교적 발걸음입니다.

다. 히브리서 12:2 <바라보자> : ἀφορῶντες <아포론테스>

성경 구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석]: 동분사(Participle)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아포>와 <호라오>가 결합하여 '다른 곳에서 시선을 떼어 한곳으로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경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만 응시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화]: 마라톤 선수가 옆 관중석을 구경하며 뛸 수 없습니다. 결승점의 끝인 지점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분사(Participle) 현재형은 이 응시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경주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지속적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세상 유혹에서 눈을 떼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라. 누가복음 15:20 <일어나서> : ἀναστὰς <아나스타스>

성경 구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분석]: 동분사(Participle)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탕자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분사입니다.

[예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일어남'입니다. 돼지우리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는 순간이 분사(Participle) 과거로 묘사된 찰나의 결단입니다. 결심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라고 도전하십시오.

마. 사도행전 16:25 <기도하고... 찬송하매> : προσευχόμενοι ὑμῶν <프로슈코메노이 휘므논>

성경 구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분석]: 기도를 뜻하는 분사(Participle)가 찬양이라는 주

동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의 태도가 찬양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동시성을 보여 줍니다.

[예화]: 기도는 찬양의 엔진이며, 찬양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감옥이라는 캄캄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을 때(분사),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미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기는 영적 에너지를 이 분사의 결합을 통해 설명하십시오.

6. '완료 시제(Perfect Tense)'의 보존성을 통해 구원의 영원성을 선포하라

가. 에베소서 2:8 <구원을 받았으니> : σεσωσμένοι <세소스메노이>

성경 구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효력이 현재까지 100%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화]: 당신의 구원은 유통기한이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이라는 도장을 찍으셨고, 그 도장의 효력은 지금도 당신의 영혼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이 완료 시제(Perfect Tense)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존 능력을 이 시제를 통해 선포하십시오.

나. 요한일서 3:9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 : γεγέννηται <게겐네타이>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이 지금도 내 안에서 맥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화]: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전자(DNA)와 같습니다. 완료 시제(Perfect Tense)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존재로 완전히 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성품이 내 안에 심겨졌음을 이 시제의 견고함으로 설명하십시오.

다. 갈라디아서 2:20 <못 박혔나니> : συνεσταύρωμαι <쉬네스타우로마이>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수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나는 과거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힌 상태로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화]: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 할 때마다 이 완료 시제(Perfect Tense)를 기억하십시오. 법적으로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지금 내 육신과 정욕을 억제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19:22 <쓸 것을 썼다> : γέγραφα <게그라파>
>

성경 구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결코 수정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임을 뜻합니다.

[예화]: 비록 악인의 입을 통해서였지만, 하나님은 완료시제(Perfect Tense)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주 앞에 확정 공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기록된 작정을 지울 수 없음을 강조하십시오.

마. 고린도후서 5:17 <되었도다> : γέγονεν <게고넌>

성경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예화]: 우리는 가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료된 새사람'으로 보십니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완료 시제(Perfect Tense)를 신뢰하십시오.

7. '가정법(Subjunctive)'의 기회를 통해 결단을 촉구하라

가. 요한복음 3:16 <멸망치 않고> : $\mu\eta\ \acute{\alpha}\pi\acute{o}\lambda\eta\tau\alpha\iota$ <메 아플레타이>

성경 구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석]: 동가정법(Subjunctive) 과거 중수디포 3인칭 단수입니다. 가정법은 '조건'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멸망이라는 필연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차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제동장치를 밟으면(가정) 멈출 수 있습니다. 가정법(Subjunctive)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은혜의 문법입니다. 지금 믿음의 손을 내밀어 멸망의 가정법을 생명의 직설법으로 바꾸라고 초청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16:24 <따라 오려거든> : $\theta\acute{\epsilon}\lambda\epsilon\iota\ldots \acute{\epsilon}\lambda\theta\epsilon\acute{\iota}\nu$ <델레이... 엘데인>

성경 구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분석]: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 제자가 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결단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가정법(Subjunctive)적 뉘앙스입니다.

[예화]: 주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서서 가는 길

입니다. "오려거든(If anyone wishes)"이라는 가정의 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게 하십시오.

다. 요한복음 15:7 <무엇이든지 구하라> : ἐὰν μείνητε... αἰτήσασθε <에안 메이네테... 아이테사스데>

성경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분석]: <에안>과 가정법(Subjunctive)이 결합하여 강력한 약속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응답의 열쇠임을 뜻합니다.

[예화]: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가정)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 상태에 있습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십시오.

라. 히브리서 3:7 <음성을 듣거든> : ἐὰν... ἀκούσητε <에

안... 아쿠세테>

성경 구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할 시급성을 가정법(Subjunctive)으로 표현합니다.

[예화]: 기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정)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님을 경고하고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을 촉구하십시오.

마. 계시록 3:20 <문을 열면> : **ἐάν τις ἀνοίξῃ** <에안 티스 아노익세>

성경 구절: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분석]: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 안에서 문고리를 돌려야(가정법(Subjunctive)) 주
님의 깊은 교제가 시작됩니다.

[예화]: 마음의 문고리는 안쪽에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은 밖에서 간절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손님
으로 모실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지는 오늘 당신
의 문을 여는 행위에 달려 있음을 전하십시오.

8. '중간태(Middle Voice)'의 유익을 통해 성도의 보상을 강조 하라

가. 마태복음 6:1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 μισθὸν οὐκ ἔχ
ετε <미스돈 우크 에케테>

성경 구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분석]: '가지다'의 능동태이지만 문맥상 성도가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중간태(Middle Voice)적 유익을 뜻합
니다.

[예화]: 신앙생활은 남을 위한 봉사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사람의 칭찬이라는 낱알을 주우려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십시오.

나. 에베소서 6:11 <전신 갑주를 입으라> : ἐνδύσασθε <엔 뒤사스데>

성경 구절: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분석]: 동명령 과거 중간태(Middle Voice) 2인칭 복수입니다. 전신 갑주는 남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직접 입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예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태(Middle Voice)는 이 무장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다. 빌립보서 1:21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 κέρδος <케르도스>

성경 구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분석]: 이 단어는 상업적 이윤을 뜻합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가장 큰 중간태(Middle Voice)적 이득이 발생하는 시점임을 말합니다.

[예화]: 세상은 죽음을 모든 것의 상실로 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최고의 투자 회수 시간입니다. 죽음조차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역설적인 신앙의 배짱을 선포하십시오.

라. 디모데전서 6:6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 αὐταρκεία <아우타르케이아스>

성경 구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분석]: 스스로를 충분하게 만드는 내면의 상태를 뜻합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중간태(Middle Voice)적 자립성입니다.

[예화]: 행복은 외부에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마. 베드로전서 5:6 <겸손하라> : ταπεινώθητε <타페이노 데테>

성경 구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석]: 형태는 수동태이나 의미는 '스스로 낮추는' 중간태(Middle Voice)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화]: 하나님께 낮춤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신비한 영적 원리를 이 문법을 통해 설명하십시오.

9. '비교급(Comparative)'의 우월성을 통해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선포하라

가. 로마서 5:20 <더욱 넘쳤나니> : ὑπερεπερίσσευσεν <휘페레페릿슈센>

성경 구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분석]: '넘치다'라는 단어에 '초월하다'라는 뜻의 전치사 <휘페르>가 결합된 비교급(Comparative)적 강화 표현입니다. 죄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문법적으로 선언합니다.

[예화]: 거대한 바다에 오물 한 바가지가 쏟아진다고 바다가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바다의 크기가 오염물의 양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홍수처럼 불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덮어버릴 만큼 광대합니다. 죄책감에 눌린 성도들에게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비

교급(Comparative)의 위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히브리서 1:4 <더 아름다운 이름을> : διαφορώτερον ὁ
νομα <디아포로테론 오노마>

성경 구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분석]: '차이가 나다' 혹은 '뛰어나다'는 뜻의 비교급
(Comparative) 형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 세상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가 아니라, 존재의 층
위 자체가 완전히 다른 '탁월한 이름'임을 뜻합니다.

[예화]: 태양 빛이 비치면 촛불은 존재감을 잃습니다. 촛
불과 태양은 '빛'이라는 속성은 공유하지만, 그 광채
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의 권세나 천사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
대적 탁월함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십시오.

나. 빌립보서 1:23 <훨씬 더 좋으니라> : πολλῶ μᾶλλον κ
ρεῖσσον <폴로 말론 크레이썬>

성경 구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

[분석]: 이중 비교급(Comparative) 표현입니다. '훨씬 더'(폴로 말론)와 '더 좋은'(크레이썬)이 결합되어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예화]: 좁은 감옥에서 넓은 궁궐로 옮겨지는 사람에게 감옥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비교 불가능하게 좋은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승리주의적 가치관을 이 강렬한 비교급으로 설명하십시오.

다. 히브리서 8:6 <더 좋은 약속으로> : κρείττονίς ἐπαγγελίαις <크레이토니스 에팡겔리아이스>

성경 구절: "...저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분석]: 질적으로 우월함을 뜻하는 비교급(Compara-

tive)입니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가진 우월한 효력을 강조합니다.

[예화]: 흑백 TV를 보던 사람이 고화질 컬러 TV를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더 좋은(Better) 길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붙잡은 성도의 자부심을 전하십시오.

라. 고린도전서 12:31 <더욱 큰 은사를> : τὰ χαρίσματα τὰ μείζονα <타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

성경 구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분석]: 가치의 순위를 정하는 비교급(Comparative)입니다. 이어지는 13장의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우위에 있음을 예고합니다.

[예화]: 은사는 많지만, 그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은사(사랑)를 추구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은사도 사랑이라는 비교급 위에 서지 않으면 소음일 뿐임을 강조하십시오.

10. '단수(Singular)'와 '복수(Plural)'의 수치 해석을 통해 공동 체성을 회복하라

가. 고린도전서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 ὑμεῖς
ναὸς θεοῦ ἐστε <히메이스 나오스 데우 에스테>

성경 구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분석]: 주어 '너희'는 복수형(Plural)이지만, 보어인 '성전'은 단수형(Singular)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개개인이 성령의 전인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 성전을 이루고 있음을 문법적으로 증명합니다.

[예화]: 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화려한 벽돌이라도 홀로 있으면 그저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벽돌이 설계도에 따라 서로 맞물리고 연결될 때 비로소 왕이 거하시는 궁전이 됩니다. 신앙은 '나 혼자'의 수양이 아니

라, 옆에 있는 지체와 사랑으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한 연합'임을 선포하십시오.

나. 갈라디아서 5:22 <성령의 열매> : ὁ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호 카르포스 투 프뉴마토스>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분석]: 뒤에 9가지의 성품이 나열되지만,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형(Singular)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파편화된 조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나타남을 뜻합니다.

[예화]: 오렌지 한 알 안에는 여러 조각이 들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통합적인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성품만 골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를 추구하십시오.

다. 마태복음 6: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ἐν τοῖς οὐ
ρανοῖς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분석]: '하늘'이 복수형(Plural)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광대하고 다층적인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예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파란 대기권 너머,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차원을 다
스리시는 분입니다. 복수형(Plural) '하늘들'은 기도
를 듣는 대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시사
합니다. 내 작은 고민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광대한 하나님께 기도의 안테나를 높이
들게 하십시오.

라. 베드로전서 2:9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 ὑμεῖς δὲ
γένος ἐκλεκτόν <히메이스 데 게노스 에클렉톤>

성경 구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분석]: 주어는 복수형(Plural)이나, 족속, 제사장, 나라는 모두 단수형(Singular)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화]: 다양한 색깔의 실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태피스트리(Tapestry)를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국적을 가진 '한 백성'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적 사명감을 고취하십시오.

마. 로마서 12:5 <한 몸이 되어> : ἐν σώμα ἕσμεν <헨 소마 에스멘>

성경 구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분석]: '많은 사람'은 복수형(Plural)이나 '몸'은 단수형(Singular)입니다. 지체의 다양성과 몸의 통일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화]: 눈, 코, 입은 생김새도 기능도 다르지만 '나'라는 한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옆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지체의 성장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따로'가 아닌 '함께'의 신비를 이 수치 대조를 통해 전하십시오.

11.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를 통해 성도의 지속적인 습관을 강조하라

가. 요한복음 3:16 <믿는 자마다> : $\pi\alpha\tilde{\iota}\varsigma\ \acute{o}\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omega\nu$ <파스호 피스튜온>

성경 구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석]: '믿는 자'가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동작의 지속과 반복, 즉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화]: 구원 얻는 믿음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가졌던

추억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요구합니다. 어제 믿었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진짜 생명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나. 마태복음 7:7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 αἰτεῖτε, ζητεῖτε, κρούετε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에테>

성경 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분석]: 세 개의 동사 모두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적 의미를 담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화]: 기도는 자판기 단추를 한 번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사귄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룹니다. 현재의 시제는 성도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 에베소서 5:18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 πληροῦσθε <플레루스데>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석]: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의 의미적 지속성을 내포합니다. '계속해서 채워짐을 당하라'는 뜻입니다.

[예화]: 성령 충만은 일회성 훈장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우리는 매일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원천에 계속 연결되어 끊임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 시제의 지속성으로 설명하십시오.

라. 히브리서 12:2 <바라보자> : ἀπορῶντες <아포론테스>

성경 구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석]: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 능동태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선을 떼어 오직 한 곳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가 지속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예화]: 마라톤 선수가 옆 관중석을 구경하며 뛸 수 없습니다. 결승점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는 이 응시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경주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지속적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세상 유혹에서 눈을 떼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마. 베드로전서 5:8 <찾나니> : ζῆτων <제톤>

성경 구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석]: 마귀의 활동을 묘사하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입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음을 시각화합니다.

[예화]: 굶주린 맹수는 먹잇감을 잡을 때까지 눈을 번뜩이며 숲을 헤맵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는 마귀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도 마귀의 공격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임을 경고하십시오.

12. '완료 시제(Perfect Tense)'의 확정성을 통해 구원의 안전을 선포하라

가. 고린도후서 5:17 <되엇도다> : γέγονεν <게고넌>

성경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엇도다"

[분석]: 동식설 완료(Perfect Tense) 능동태입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효력이 현재까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화]: 우리는 가끔 옛 자아의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정말 새사람인가?"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료 시제(Perfect Tense)를 통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상태'로 법적 고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완료 시제는 사단도, 세상도, 심지어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 판결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문법을 더 신뢰하십시오.

나. 에베소서 2:8 <구원을 얻었나니> : ἔστε σεσωσμένοι
<에스테 세소스메노이>

성경 구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분석]: '너희는 구원받은 상태이다'라는 뜻의 완료 분사 (Perfect Participle) 수동태입니다. 구원의 시작(과거)과 결과(현재)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화]: 당신의 구원은 유통기한이 있는 티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이라는 도장을 찍으셨고, 그 도장의 효력은 지금도 당신의 영혼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이 완료된 상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존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다.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 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 스타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수동태입니다. 대속의 모든 대가가 과거에 지불되었고, 그 효력이 영원히 완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화]: 은행에서 빚을 다 갚으면 '완불(Paid in full)' 도장을 찍어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에 대해 완료 시제(Perfect Tense)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채무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갚아진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 갈라디아서 2:20 <못 박혔나니> : συνεσταύρωμαι <쉬네스타우로마이>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수동태입니다. '나

는 과거에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힌 상태로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화]: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 할 때 이 완료 시제 (Perfect Tense)를 기억하십시오. 법적으로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지금 내 육신과 정욕을 억제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마. 요한일서 3:9 <하나님께서로부터 났음이라> : γεγέννηται
| <게겐네타이>

성경 구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분석]: 동직설 완료(Perfect Tense) 수동태입니다. 거듭
남은 취소될 수 없는 신분적 고정입니다.

[예화]: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실은 영원히 변하
지 않는 유전자(DNA)와 같습니다. 완료 시제(Perfect
Tense)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존재로 완
전히 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성품이 내 안에 심겨졌음을 이 시제의 견고함으로
설명하십시오.

13.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를 통해 스스로 낮아지 신 사랑을 보라

가. 빌립보서 2:7 <자기를 비워> : ἑαυτὸν ἐκένωσεν <헤아
우톤 에케노센>

성경 구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들과 같이 되었고"

[분석]: '자기 자신을' 뜻하는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가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주님의 자발적
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예화]: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비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자발적인 자기 비움(Kenosis)은 강요된 희생이 아
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직접 내리신 사랑
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주체적 사랑

을 전하십시오.

나. 갈라디아서 2:20 <자기 몸을 버리신> : παραδόντος ἑαυτὸν <파라돈토스 헤아우톤>

성경 구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분석]: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재귀 대명사 (Reflexive Pronoun)를 통해 표현합니다.

[예화]: 십자가는 실패한 순교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단입니다. 나라를 한 영혼을 사기 위해 주님은 당신 자신을 '직접'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가치를 재귀 대명사 (Reflexive Pronoun)의 무게감으로 설명하십시오.

다. 에베소서 5:25 <자신을 주심 같이> : ἑαυτὸν παρέδωκεν <헤아우톤 파레도켄>

성경 구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분석]: 사랑의 증거로서의 자기 희생을 재귀 대명사 (Reflexive Pronoun)로 확정합니다.

[예화]: 진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행동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랑도 이 '자기 줌'의 원리 위에 서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라. 마태복음 27:42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 ἑαυτὸν οὐ δύναται σῶσαι <헤아우톤 우 뒤나타이 소사이>

성경 구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분석]: 조롱하는 자들의 말이었으나, 주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음을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예화]: 주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신 절제된 사랑을 묘사하십시오.

마. 디모데전서 2:6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 $\delta\omicron\upsilon\varsigma \acute{\epsilon}\alpha\upsilon\tau\omicron\nu\nu$ <두스 헤아우톤>

성경 구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분석]: 몸값으로 지불된 주체가 주님 '그분 자신'임을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로 확정합니다.

[예화]: 노예였던 우리를 사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화폐로 지불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하십시오.

14. '강조 부정어(Emphatic Negation)'를 통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라

가. 요한복음 10:28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 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우 메 아폴론타이>

성경 구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분석]: '우 메'라는 이중 부정어(Emphatic Negation)를 사용하여 '절대 불가능'을 선언합니다.

[예화]: 주님은 단순히 안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을 써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의 완벽한 안전을 선포하십시오.

나. 히브리서 13:5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 οὐ μὴ σε ἀνῶ <우 메 세 아노>

성경 구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석]: 한 문장에 '우 메'를 반복 사용하여 5중 부정을

이루는 강력한 강조 부정어(Emphatic Negation)입니다.

[예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의지를 이 단어 하나로 선포하십시오.

다. 요한복음 6:37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 οὐ μὴ ἐκβάλλω ἔξω <우 메 에크발로 엑소>

성경 구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분석]: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조 부정어(Emphatic Negation)로 보증합니다.

[예화]: "내 과거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우리를 쫓아내실 가능성이 '0%'임을 문법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라. 마태복음 24:35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οἱ δὲ λόγοι μου οὐ μὴ παρέλθωσιν <호이 데 로고이 무우 메 파렐도시린>

성경 구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석]: 천지의 소멸 가능성과 대조하여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 부정어(Emphatic Negation)로 확증합니다.

[예화]: 세상의 모든 문명과 별들은 사라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날 확률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 대신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라고 권면하십시오.

마. 마태복음 16:22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 οὐ μὴ ἔσται σοι τοῦτο <우 메 에스타이 소이 투토>

성경 구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석]: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을 막아서며 사용한 강력한 강조 부정어(Emphatic Negation)입니다.

[예화]: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을 다해 주님의 죽음을 '절대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열심이었으나, 그가 가졌던 단호한 의지를 이 문법적 표현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진리를 수호할 때 이와 같은 단호함이 있어야 함을 전하십시오.

15. '부정 과거(Aorist)'를 통해 단회적이고 확정적인 구원을 보라

가.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 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스타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분석]: 완료 시제 속에 담긴 부정 과거(Aorist)적 사건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는 행위

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예화]: 빛에 허덕이던 사람이 마지막 잔금을 모두 치르는 순간, 은행원이 영수증 위에 '완불(Paid in Full)' 도장을 꽂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다시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빛에 대해 이 부정 과거(Aorist)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의 채무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나. 에베소서 2:5 <구원을 얻은 것이라> : ἐστὲ σεσωσμένοι
| <에스테 세소스메노이>

성경 구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분석]: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 현재까지 효력을 미치는 부정 과거(Aorist)적 기초 위에 선 완료 분사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예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대원이 밧줄로 건져내어 모래사장 위에 눕혀 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는 이미 '구조된(Saved)' 사람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쌓아가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확정된 과거의 은혜입니다. 이 확신 위에 오늘을 사십시오.

다. 히브리서 9:12 <이루셨느니라> : εὐράμενος <휴라메노스>

성경 구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분석]: 부정 과거(Aorist) 중간태 분사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라는 결과를 확정 지으셨음을 뜻합니다.

[예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 제도를 폐기하셨습니다. 부정 과거(Aor-

ist) 시제는 이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단 한 번'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능력이 영원토록 당신을 씻어줍니다.

라. 로마서 5:1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 δικαιωθέντες
<디카이오펜테스>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분석]: 부정 과거(Aorist) 수동태 분사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되어진' 법정적 사건이 과거에 이미 발생했음을 말합니다.

[예화]: 재판장이 두드리는 판사봉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죄(Not Guilty)!"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죄인의 신분은 즉시 의인으로 바뀝니다. 부정 과거(Aorist)는 이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을 뜻합니다. 사단이 당신을 고소할 때,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무죄

판결문을 들이미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의인입니다.

마. 베드로전서 2:24 <나음을 얻었나니> : ἴαθητε <이아데테>

성경 구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분석]: 부정 과거(Aorist)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주님의 고난과 함께 이미 법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화]: 이미 송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회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대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았다"는 부정 과거(Aorist)의 선언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질병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확정된 사건입니다.

16. '감탄사(Interjection)'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껴라

가. 요한복음 1:29 <보라> : ἴδτε <이데>

성경 구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석]: 모든 시선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강력한 감탄사(Interjection)이자 명령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을 발견한 자의 경이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화]: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선원들이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 불빛을 발견했을 때의 외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라! 등대다!" 이 감탄사는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살기 위해 저 빛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 근심에 팔려 있던 시선을 거두어, 오직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주님께 집중하라는 긴박한 복음의 외침입니다.

나. 갈라디아서 4:6 <아바 아버지> : Ἀββᾶ ὁ Πατήρ <아바 호 파테르>

성경 구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석]: 아람어 감탄사(Interjection)적 호칭인 '아바'와 헬라어 '파테르'를 나란히 배치하여, 친밀함과 경외감이 결합된 관계를 묘사합니다.

[예화]: 엄격한 임금님이 어린 아들에게는 그저 다정한 '아빠'가 되는 신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엄위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감탄사(Interjection)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벽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녀의 당당함을 누리십시오.

다. 로마서 11:33 <깊도다> : Ὠ βάθος <오 바도스>

성경 구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분석]: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 찬양의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압도당한 사도의 영혼의 비명입니다.

[예화]: 거대한 에베레스트산 앞에 선 등반가가 그 위용에 압도되어 입을 벌린 채 "오!"라고 탄성을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감탄하십시오. 논리가 멈추는 곳에서 참된 경배가 시작됨을 이 감탄사(Interjection)가 보여줍니다.

라. 계시록 21:5 <보라> : Ἰδοὺ <이두>

성경 구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분석]: 역사의 마지막 반전을 선포하는 신적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보이지 않던 새 창조가 실체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예화]: 공연의 막이 오르기 직전, 사회자가 "자, 이제 보십시오!"라고 외치며 베일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낡고 병든 세상,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리는 이 감탄사(Interjection)는 성도의 최종적인 승전보입니다.

마. 마태복음 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Ἱερουσαλὴμ Ἱερουσαλήμ <히에루살렘 히에루살렘>

성경 구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분석]: 반복을 통한 애끓는 호곡의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심판을 앞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며 부모가 그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앎 탐이 새끼를 모음같이 품으려 하시는 주님의 눈물

섞인 부름입니다. 이 호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을 전하십시오.

17. '접속사(Conjunction)'를 통해 복음의 논리적 반전을 경험하라

가.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 ἄρα vñv <아라 님>

성경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석]: 7장의 처절한 죄와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고 해방을 선언하는 결론적 접속사(Conjunction)입니다.

[예화]: 캄캄한 터널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햇살 아래로 튀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7장까지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했지만, 이 접속사(Conjunction)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Therefore)"라는 이 선언 위에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나. 에베소서 2:4 <그러나 하나님> : ὁ δὲ θεὸς <호 데 데오스>

성경 구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분석]: 인간의 절망적 상태(1-3절)를 뒤집는 반전의 접속사(Conjunction) '데(<δὲ>)'입니다.

[예화]: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는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진단한 뒤에, 명의를 나타내 "그러나(But) 내가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를 은혜의 자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곳에 하나님의 접속사는 쉼표를 찍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다. 요한복음 3:16 <이처럼... 하사> : οὕτως... ὥστε <후토스... 호스테>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분석]: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Conjunction)의 결합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독생자의 희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예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농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농도는 독생자 예수의 피의 농도와 같습니다. "이토록(So)"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를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의 농도가 진했기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라. 갈라디아서 2:20 <그런즉 이제는> : δε οὐκέτι <데 우케티>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분석]: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조적 접속사(Conjunction)입니다.

[예화]: 낡은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 빌딩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지번은 같을지 모르나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접속사(Conjunction)는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제는(No longer)"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마. 고린도후서 5:17 <보라 새것이> : ἰδοὺ γέγονεν <이두 게고넨>

성경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분석]: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Conjunction) 가르(<γὰρ>)와 함께 쓰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화]: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된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 접속사(Conjunction)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음을 확증합니다. 과거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하나님 나라의 창공을 날아오르

는 새로운 삶을 선포하십시오.

18. '의문문(Interrogative)'을 통해 청중의 양심을 깨워라

가. 로마서 8:31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τίς καθ' ἡμῶν
v <티스 카드 해몬>

성경 구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
적하리요"

[분석]: 답을 알고 묻는 수사적 의문문(Interrogative)입
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대적의 무력함을 강
조합니다.

[예화]: 사자와 함께 걷는 강아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
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누가
당신을 무너뜨리겠느냐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질
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
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우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나. 마태복음 16:26 <무엇이 유익하리요> : τί ὠφελήθησε
ται <티 오펠레데세타이>

성경 구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
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분석]: 가치의 우선순위를 묻는 직설적인 의문문(In-
terrogative)입니다.

[예화]: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황
금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고 얻은 세상의 성공은 0점에 불과함을 이 질문을
통해 뼈아프게 깨닫게 하십시오.

다. 히브리서 2:3 <어찌 피하리요> : πῶς ἡμεῖς ἐκφευξόμ
εθα <포스 헤메이스 에크퓨크소메다>

성경 구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
찌 피하리요..."

[분석]: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반어적 의문문(Interrogative)입니다.

[예화]: 불타는 건물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구원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일깨웁니다.

라. 요한복음 21:15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ἀγαπᾷς με
<아가파스 메>

성경 구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분석]: 관계의 본질을 묻는 인격적 의문문(Interrogative)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사역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신앙

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마. 로마서 6:1 <죄에 거하겠느냐> : ἐπιμένωμεν τῇ ἁμαρτίᾳ <에피메노멘 테 하마르티아>

성경 구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분석]: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강력한 부정적 의문문 (Interrogative)입니다.

[예화]: 병을 고쳐준 의사에게 고마워서 병에 계속 걸려 있겠다고 말하는 환자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룩한 당위성을 이 질문을 통해 선포하십시오.

19. '장소/시간 부사(Adverb)'를 통해 영적 위치와 시점을 확인하라

가. 로마서 8:1 <이제> : vōv <뉘>

성경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석]: 과거의 정죄와 현재의 자유를 나누는 결정적인 시간 부사(Adverb)입니다.

[예화]: 노예 해방 선언문이 낭독된 '그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 "이제"는 십자가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시계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 에베소서 2:13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 vuvì δè... ἐγγενήθητε ἐγγύς <뉘니 데... 에게네데테 앵귀스>

성경 구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석]: 시간 부사(Adverb)와 거리 부사(Adverb)의 결합을 통해 관계의 변화를 묘사합니다.

[예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주적 거리만큼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의 피는 그 간격을 지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 히브리서 4:16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μετὰ παρηγορίας <메타 파레시아스>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석]: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Adverb)적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자격을 보여줍니다.

[예화]: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서들은 막아설지 몰라도 아버지는 웃으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

까지 당당하게(With Confidence)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라. 골로새서 3:1 <위의 것을 찾으라> : τὰ ἄνω ζητεῖτε <타아노 제테이테>

성경 구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분석]: 방향을 나타내는 장소 부사(Adverb)입니다. 성도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고도를 규정합니다.

[예화]: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은 진흙탕만 보지만,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사람은 찬란한 태양과 하늘을 봅니다.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있는 "위"를 향해 인생의 조준점을 맞추십시오. 당신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마. 마태복음 28:20 <항상 함께 있으리라> : πάσας τὰς ἡμέρας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성경 구절: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

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석]: '모든 날들 동안'을 의미하는 시간 부사(Adverb) 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예외적인 날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예화]: 맑은 날뿐만 아니라 비바람 치는 날에도, 기쁜 날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항상(Always)"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유효기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동행 아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20. '생략(Ellipsis)'의 행간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과 임재를 읽으라

가. 마태복음 26:39 <내 원대로 마옵시고> : $\mu\eta\ \omega\varsigma\ \epsilon\gamma\omega\ \theta\epsilon\lambda\omega$ <메 호스 예고 델로>

성경 구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석]: 문장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동사가 빠져 있는 생략(Ellipsis) 구조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에서 문장이 멈춥니다. 이는 극한의 고통과 순종 사이에서 자신의 의지를 삭제하시는 주님의 처절한 자기 부정을 문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화]: 백지에 글을 쓰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여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침묵과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강조하는 동사조차 생략(Ellipsis)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문장을 화려하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문장을 지워가는 과정임을 이 생략의 미학을 통해 전하십시오.

나. 로마서 8:31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τίς καθ' ἡμῶν
v <티스 카드 헤몬>

성경 구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

적하리요"

[분석]: '대적하다'라는 동사가 생략(Ellipsis)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은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항하여?"라고만 묻습니다.

[예화]: 사자와 함께 걷는 어린 양에게 늑대가 덤빌 수 있을까요? 바울은 대적이 '어떻게 한다'는 서술 자체를 생략(Ellipsis)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에게 대적의 공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무의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세상의 위협은 문장조차 구성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다. 요한복음 1:1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성경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석]: 전치사 <프로스>(~를 향하여) 뒤에 연합을 뜻하는 동사가 생략(Ellipsis)된 채 직접 목적으로 연결됨

니다.

[예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이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완벽한 연합은 동사라는 매개체 없이도 이미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이처럼 어떤 수식어나 설명이 필요 없는 '생략된 일치'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라. 갈라디아서 5:13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διὰ τῆς ἀγάπης δουλεύετε <디아 테스 아가페스 둘류에테>

성경 구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분석]: 복잡한 수식어들이 생략(Ellipsis)된 채 '사랑을 통하여'와 '종 노릇 하라'가 직설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끈에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나 계산을 생략(Ellipsis)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 남을 때, 성도는 비로소 기꺼이 서로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굳더더기 없는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십시오.

마. 고린도전서 15:10 <나의 나 된 것은> : χάριτι δὲ θεοῦ ἐῖμι ὃ εἶμι <카리티 데 데우 에이미 호 에이미>

성경 구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분석]: 바울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의 수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생략(Ellipsis)된 채 "나는 나다"라는 존재적 선언만 남았습니다.

[예화]: 파란만장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적으려면 책 수십 권이 필요하겠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Ellipsis)하고 오직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단어만 남기는 단순함의 영성을 전하십시오.

21. '부정사(Infinitive)'를 통해 사명의 목적과 방향을 확정하라

가. 에베소서 1:4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εἶνα ἡμᾶς ἁγίους <에이나이 헤마스 하기우스>

성경 구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석]: '존재하다'를 뜻하는 동사 <에이미>의 부정사(Infinitive)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는 행위를 넘어, 거룩한 존재 자체가 '되는 것'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화]: 조각가가 돌덩이를 깎는 이유는 단순히 돌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작품을 '나오게 하기(To be)' 위함입니다. 구원은 지옥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빛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부정사(Infinitive)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확정합니다.

나. 마태복음 20:28 <섬기려 하고> : διακονῆσαι <디아코 네사이>

성경 구절: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석]: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규정하는 부정사(Infinitive)입니다. 주님의 전 생애가 지향했던 단 하나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예화]: 화살이 시위를 떠나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전 생애라는 화살은 '섬김'이라는 과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정사(Infinitive), 즉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섬김을 향해 화살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도전하십시오.

다. 빌립보서 1:21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 τὸ ζῆν Χριστός <토 젠 크리스트로스>

성경 구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분석]: 관사가 붙은 명사적 부정사(Infinitive)입니다. 삶이라는 추상적 동사를 '그리스도'라는 실체적 명사와 일치시킵니다.

[예화]: 바울에게 삶은 더 이상 동사(활동)가 아니라 명사(그리스도)였습니다. 숨 쉬고, 걷고, 일하는 모든 동작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인생의 복됨을 이 부정사(Infinitive)를 통해 선포하십시오.

라. 디모데전서 1:15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 ἁμαρτωλοῦς σωσαι <하마르톨루스 소사이>

성경 구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분석]: 주님의 오심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목적의 부정

사(Infinitive)입니다.

[예화]: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조하기 위함(To save)'입니다. 주님은 관광객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조대원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정사(Infinitive)는 주님의 사역이 오직 우리를 건져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마. 히브리서 9:27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 ἀποθανεῖν <아포다네인>

성경 구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석]: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정의하는 명사적 부정사(Infinitive)입니다.

[예화]: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To die)'입니다. 이 부정사(Infinitive)는 인간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어지는 관문임을 인식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십시오.

22. '호칭(Vocative)'의 다정함과 권위를 통해 위로와 경고를 전하라

가. 요한복음 21:5 <애들아> : παιδία <파이디아>

성경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분석]: '어린이들'을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Vocative)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던진 다정한 외침입니다.

[예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실력을 꾸짖지 않으시고 "애들아(Dear children)"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Vocative)에는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주님은 정죄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호칭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심을 전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9:2 <소자야> : θάρσει, τέκνον <다르세이, 테 크논>

성경 구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분석]: '자녀'를 뜻하는 친밀한 호칭(Vocative)입니다. 병자의 고통을 넘어 그의 영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예화]: 세상은 그를 '중풍병자'라는 질병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주님은 그를 '내 자녀(My son)'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세상이 붙인 꼬리표를 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새로운 호칭(Vocative)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신분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다. 요한복음 20:16 <마리아야> : Μαριάμ <마리아>

성경 구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
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분석]: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고유 명사의 호칭(Vocative)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 순간입니다.

[예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무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호칭(Vocative)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강조하십시오.

라. 갈라디아서 3: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 ὦ
ἀνόητοι Γαλάται <오 아노에토이 갈라타이>

성경 구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분석]: 안타까움과 경고가 섞인 감탄사적 호칭(Vocative)

tive)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향한 사도의 절박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예화]: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아이를 향해 소리치는 부모의 외침과 같습니다. "이 녀석아!"라는 호칭 속에는 분노보다 사랑과 걱정이 더 크게 녹아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가슴을 치며 외치는 사도의 심장을 이 호칭(Vocative)을 통해 느끼게 하십시오.

마.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여> : τὸ μικρὸν ποίμνιον <토 미크론 포임니온>

성경 구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분석]: '작은 양 떼'를 뜻하는 다정한 호칭(Vocative)입니다.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예화]: 거대한 세상의 늑대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작은 양 떼(Lit-

the flock)"라고 부르시며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호칭(Vocative)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의 크기가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23.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를 통해 사역의 유일한 주체를 조명하라

가. 마태복음 1:21 <그가 자기 백성을> : αὐτὸς γὰρ σώσει
<아우토스 가르 소세이>

성경 구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석]: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 <아우토스>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 자신(He Himself)"이 구원자임을 못 박습니다.

[예화]: 천사도, 선지자도, 그 어떤 위대한 성자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분 자신'만이 유일한 해결사입니다. 이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 Αὐτὸς γὰρ ἐστὶν ἡ εἰρήνη ἡμῶν <아우토스 가르 에스틴 헤 에이레네 헤몬>

성경 구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분석]: 그리스도 '자신'이 곧 화평임을 강조하는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입니다.

[예화]: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곧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가 지시하는 '그분'을 모십시오.

다. 히브리서 13:5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 αὐτὸς γὰρ εἶρηκεν <아우토스 가르 에이레켄>

성경 구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라"

[분석]: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임을 보증하는 강조 대
명사(Intensive Pronoun)입니다.

[예화]: 왕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문서와 같습니다. 대
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하신 약속
이기에 천지가 없어져도 이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
다. 이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를 붙들고 고
난의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라. 요한일서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 κ
αὶ αὐτὸς ἱλασμός ἐστιν <카이 아우토스 힐라스모스 에
스틴>

성경 구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석]: 주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입니다.

[예화]: 주님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보혈을 직접 쏟으신 그 압도적인 희생을 이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를 통해 묵상하십시오.

마. 계시록 21:3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 αὐτὸς ὁ θεὸς μετ' αὐτῶν ἔσται <아우토스 호 데오스 메트 아우톤 에스타이>

성경 구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분석]: 하나님의 실재적인 임재를 약속하는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입니다.

[예화]: 천국은 좋은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

신'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다정함을 이 강조 대명사(Intensive Pronoun)가 보증합니다.

24. '미래 중수디포(Future Middle/Passive Deponent)'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소망을 보라

가. 마태복음 5:8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τὸν θεὸν ὄψονταί <톤 데온 옵손타이>

성경 구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분석]: 동직설 미래 중수디포(Future Deponent) 3인칭 복수입니다. 헬라어에서 미래 디포넛트는 주어의 강력한 참여와 함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정하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예화]: 해가 내일 아침에 뜰 것이라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미래 중수디포(Future Deponent)는 성도가 장차 누릴 영광의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나. 마태복음 5:5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클레로노메수신>

성경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분석]: 상속받을 것을 약속하는 미래 시제입니다.

[예화]: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손해를 보고 땅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이미 그들이 상속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미래 시제는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다. 요한복음 14:3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 παραλήψομαι ὑμᾶς <파랄렙소마이 헤마스>

성경 구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석]: 주님의 재림과 영접을 약속하는 미래 중수디포 (Future Deponent)입니다.

[예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미래 중수디포(Future Deponent) 시제 속에 담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견뎌 내십시오.

라. 로마서 6:8 <함께 살 줄을 믿노니> : συζήσομεν <쉬제 소멘>

성경 구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분석]: 부활의 연합을 확증하는 미래 시제입니다.

[예화]: 주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도 그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

반드시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미래의 생명을 이 시제를 통해 선포하십시오.

마. 빌립보서 3:21 <변케 하시리라> : μετασχηματίσει <메타스케마티세이>

성경 구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낡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분석]: 육신의 완전한 변화를 약속하는 미래 시제입니다.

[예화]: 낡은 집을 헐고 찬란한 궁궐로 재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하고 병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그날이 이 미래 시제 속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질병과 노화를 이길 힘이 됨을 전하십시오.

25.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전하라

가. 요한복음 14:26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 ὑμ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휘마스 디닥세이 판타>

성경 구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석]: '너희(ὕμᾶς)'와 '모든 것(πάντα)'이 모두 목적격으로 쓰인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 구조입니다. 이는 성령 사역의 대상이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임을 문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화]: 성령님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이 문법은 성령께서 '우리'라는 인격과 '진리'라는 내용을 동시에 장악하심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치 아래 완전히 매몰되는 상태임을 선포하십시오.

나. 요한복음 16:13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 ὁδηγήσει ὑμᾶς εἰς τὴν ἀλήθειαν <호데게세이 휘마스 에이스 텐 알레데이안>

성경 구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분석]: 인도하는 주체가 대상(너희)을 특정 영역(진리)으로 이끄는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적 성격을 띠입니다.

[예화]: 길 잃은 나그네에게 지도 한 장을 던져주는 것과 직접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진리라는 거대한 대륙의 구석구석을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막연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진리의 인도를 강조하십시오.

다. 히브리서 1:9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 ἔχρισέν σε... ἔλαιον ἀγαλλιᾶσεως <에크리센 세... 엘라이온 아갈리아세오스>

성경 구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분석]: 부음의 대상(너)과 재료(기름)를 동시에 목적어
로 취하는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입니다.

[예화]: 은혜의 기름은 우리 머리 위에 살짝 묻었다가 마
르는 향수가 아닙니다. 이 문법은 그 기름이 우리 존
재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킴을 의미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라는 그릇 전체에 부
어져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확정합니다.

라. 요한복음 15:15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 ὑμᾶς εἶρη
κα φίλους <휘마스 에이레카 필루스>

성경 구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
구라 하였노니..."

[분석]: '너희'와 '친구'를 대등한 목적격으로 연결하여

신분을 재정의하는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입니다.

[예화]: 주님은 우리를 시키는 일만 하는 '종'의 위치에 두지 않으십니다. 이 문법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격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계시)을 공유하는 '친구'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친밀함이 복음의 핵심임을 전하십시오.

마. 빌립보서 3:15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 καὶ τοῦτο ὁ θεὸς ὑμῖν ἀποκαλύψει <카이 투토 호 데오스 휘민 아포칼립세이>

성경 구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분석]: 계시의 내용(이것)과 대상(너희)을 동시에 지칭하는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적 흐름입니다.

[예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오해할 때 하나님

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법 구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의 개인 과외 스승이 되셔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실 것임을 보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육적 열심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26. '감탄사(Interjection)'를 통해 복음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라

가. 요한복음 1:29 <보라> : ἴδτε <이데>

성경 구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석]: 시선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명령적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예화]: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지루한 일상과 세상 염려에 팔려 있던 우리 마음의 고개를 억지로 돌려 십자

가를 보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시선을 그 어
린 양께 고정하라는 긴박한 영적 환기를 설교에 담
으십시오.

나. 요한복음 19:5 <보라 이 사람이로다> : Ἴδε ὁ ἄνθρωπος
ς <이데 호 안드로포스>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
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
람이로다 하매"

[분석]: 비참한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지시적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예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는 예수를 보라는 외
침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해 가장 비참한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관념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살이 찢기고 모욕당
하신 '이 사람'을 대면할 때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다. 로마서 11:33 <깊도다> : Ὠ βάθος <오 바도스>

성경 구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것이로다"

[분석]: 감탄사 '오'와 함께 쓰여 지성의 한계를 넘어선
찬탄을 표현하는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예화]: 바울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결국 인간의 언어가 바닥나자 비명을
지르듯 감탄합니다.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할 말을 잃고 오직 경탄하게
만드십시오.

라. 요한계시록 21:5 <보라> : Ἰδοὺ <이두>

성경 구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
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
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분석]: 역사의 마지막 반전을 알리는 우주적 선포의 감

탄사(Interjection)입니다.

[예화]: 낯고 병든 세상,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의 질서가 끝났음을 알리는 천상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감탄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마. 마태복음 1:23 <보라> : Ἰδοὺ <이두>

성경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분석]: 불가능한 기적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상식을 중단시키는 주의 집중의 감탄사(Interjection)입니다.

[예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성경은 이 단어를 씁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이 기적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막힌 담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27. '미완료(Imperfect Tense)'를 통해 변화의 시작과 지속을 묘사하라

가. 마태복음 5:2 <가르쳐 가라사대> : ἐδίδασκεν <에디다스켄>

성경 구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분석]: 가르침의 시작과 지속을 의미하는 미완료(Imperfect Tense) 능동태입니다.

[예화]: 주님의 산상수훈은 일회성 연설이 아닙니다. 이 시제는 주님께서 입을 여시는 순간, 제자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교과서임을 전하십시오.

나. 사도행전 2:45 <나뉘 주며> : διεμέριζον <디에메리존>

성경 구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분석]: 나눔의 행위가 일시적 감정이 아닌 반복적 습관이었음을 보여주는 미완료(Imperfect Tense)입니다.

[예화]: 은혜를 받으면 인색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한 번의 큰 기부가 아니라 이웃의 배고픔이 보일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욕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강조하십시오.

다. 누가복음 15:20 <달려가> : ἔδραμεν <에드라멘>

성경 구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분석]: 아들을 보는 순간 시작된 아버지의 긴박한 움직임

임을 시각화하는 미완료(Imperfect Tense)적 뉘앙스의 과거형입니다.

[예화]: 아버지는 아들의 초라한 행색을 분석할 겨를도 없이 보는 즉시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그 과정의 긴박함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을 강조 하십시오.

라. 마가복음 1:31 <수종드니라> : δεικνóει <디에코네이>

성경 구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분석]: 병 고침을 받은 즉시 시작된 봉사의 지속적 상태를 나타내는 미완료(Imperfect Tense)입니다.

[예화]: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체험은 감상으로 끝나지 않고 봉사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기쁨으로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섬겼음을 생생하게 묘사하십시오.

마. 사도행전 16:25 <기도하고 찬송하매> : προσευχόμενοι
ἰ ὕμνων <프로슈코메노이 휘므논>

성경 구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분석]: 감옥이라는 절망적 환경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찬양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미완료(Imperfect Tense)입니다.

[예화]: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인 밤,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제는 그 찬양이 감옥의 정적을 깨뜨리며 밤새도록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환경을 압도하는 성도의 찬양이 어떻게 어둠의 결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지 강조하십시오.

28. '현재 분사 구문(Present Participle Construction)'을 통해 하나님의 동시성을 보라

가. 마가복음 16:20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 τοῦ κυρίου
συνεργούντος <투 퀴리우 쉬네르군토스>

성경 구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
시니라"

[분석]: 제자들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남
을 뜻하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 독립 구문
입니다.

[예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주님은 구경꾼이 아
니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주님도 실시간으로 역
사하십니다. 사역의 현장은 나의 고군분투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보조를 맞추는 2인 3각 경기임을 전하
십시오.

나. 마태복음 28:20 <항상 함께 있으리라> : πάσας τὰς ἡμ
έρας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성경 구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
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

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석]: 주님의 임재가 모든 날들 속에 지속됨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적 의미의 결합입니다.

[예화]: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늘 감싸고 있는 실시간 동행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당신을 향해 고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다. 히브리서 7:25 <항상 살아서 간구하심이니라> : ζῶν εἰς τὸ ἐντυγχάνειν <존 에이스 토 엔팅카네인>

성경 구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분석]: 주님의 증보 사역이 하늘 보좌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입니다.

[예화]: 우리가 너무 지쳐 기도의 한 문장도 뱉지 못할 때, 하늘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은 활동하는 생명이며, 그 목적은 바로 연약한 당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라. 요한복음 5:17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 ὁ πατήρ μου ἕως ἄρτι ἐργάζεται <호 파테르 무 헤오스 아르티 에르가제타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분석]: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 쉬 없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적 성격의 시제입니다.

[예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휴가를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가 돌고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시다.

마. 고린도후서 5:19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 θεὸς ἦν ἐν Χριστῷ <데오스 엔 엔 크리스토>

성경 구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분석]: 화목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시간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묘사하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 적 구문입니다.

[예화]: 십자가의 화목은 과거의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이 실시간적인 초대 앞에 즉각 반응하십시오.

29.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를 통해 축복의 근거를 추적하라

가. 에베소서 1:7 <그리스도 안에서> : ἐν ᾧ <엔 호>

성경 구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분석]: 모든 축복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입니다.

[예화]: 구속과 죄 사함이라는 선물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법은 이 모든 복이 반드시 '예수'라는 보자기 안에만 담겨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 없는 복은 가짜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 ἐν τῷ ἐνδυναμοῦντί με <엔 토 엔뒤나무네티 메>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석]: 능력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적 분사 구문입니다.

[예화]: 내가 강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주입하시는 '그분' 안에 내가 플러그를 꽂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축복의 화살표를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다. 골로새서 1:13 <그가 우리를 옮기셨으니> : ὁς ἐρρύσατο ἡμᾶς <호스 에뤼사토 헤마스>

성경 구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분석]: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부각하는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입니다.

[예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흑암을 탈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법은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낚아채어 옮겨놓으셨음을 증명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실력이자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전하십시오.

라.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 ὁς τὰς ἀμαρτίας ἡμῶν αὐτὸς ἀνήνεγκεν <호스 타스 하마르티아스 헤 몬 아우토스 아네넝켄>

성경 구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석]: 대속의 희생을 치른 분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입니다.

[예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 문법은 그 고귀한 분이 직접 그 험한 나무에 오르셨음을 강조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인지를 보여줍니다.

마. 요한복음 1:11 <자기 땅에 오매> : εἰς τὰ ἴδια ἦλθεν <에이스 타 이디아 엘덴>

성경 구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분석]: 창조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관계 대명사(Relative Pronoun)적 표현입니다.

[예화]: 주님은 이 세상에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법은 주님이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의 비극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30.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를 통해 변치 않는 진리의 무게를 전하라

가. 히브리서 13:8 <동일하시니라> : ὁ αὐτός <호 아우토스>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분석]: 시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의 상태를 나타내는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 시제입니다

다. 주님의 인격과 약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음을 문법적으로 확정합니다.

[예화]: 세상의 유행은 6개월만 지나도 촌스러워지고,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 시제가 보증하는 예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미래나 결코 녹슬거나 변하지 않는 금강석과 같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파도에 몸을 맡기지 말고, 변치 않는 반석이신 주님의 성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강력히 선포하십시오.

나. 요한일서 4:8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성경 구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석]: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규정하는 '이다' 동사의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적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본성임을 뜻합니다.

[예화]: 설탕이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설탕 자체가 단맛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 시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로 곁으로 성도들을 초대하십시오.

다. 히브리서 1:3 <만물을 붙드시며> : φέρων τὰ πάντα <페론 타 판타>

성경 구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분석]: 우주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실시간임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Present Participle)이자 영원한 현재적 사역입니다.

[예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며, 우주의 수억 개 별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태업을 한 번 감아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현재 (Static Present)적 사역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의 손길로 만물을 실시간으로 '붙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시간 통치 아래 있음을 시각화하여 전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3:36 <영생이 있고> :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성경 구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분석]: 영생이 사후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 시제입니다.

[예화]: 영생은 나중에 받을 상금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의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이미 당신 영혼 속에 플러그인(Plug-in) 된 것입니다. 이 시제는 영생이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할 현재적 실재를 강조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더 놀라

운 것은, 지금 내 안에 임한 천국임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마. 고린도후서 6:2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 $\nu\tilde{\nu}\nu$ $\eta\mu\epsilon\rho\alpha$ $\sigma\omega\tau\eta\rho\acute{\iota}\alpha\varsigma$ <뉘 헤메라 소테리아스>

성경 구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석]: 현재를 강조하는 부사와 함께 쓰여 구원의 시급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영원한 현재(Static Present)적 선언입니다.

[예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내일'의 막연한 계획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이라는 현재 시제 속에만 존재하는 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늘' 취해야 할 생존 양식임을 강조하며, 지금 즉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결단을 촉구하십시오.

31.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을 조명하라

가. 마태복음 5:4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παρακληθήσο
νται <파라클레데손타이>

성경 구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분석]: 문법적으로 주어가 생략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주체이심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입니다.

[예화]: 세상은 스스로 강해져서 위로를 쟁취하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속에 숨어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당신의 눈물을 닦고 계심을 강조하십시오. 위로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마태복음 5:6 <배부를 것임이요> : χορτασθήσονται <코르타스데손타이>

성경 구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분석]: 만족의 근원이 인간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입니다.

[예화]: 영혼의 굶주림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이라는 '음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는 내가 배부르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먹는 수동적 신뢰의 복을 전합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갈망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 로마서 5:1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 δικαιωθέντες <디카이오펜테스>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분석]: 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에 의해 '의로운 존재로 선포되어진' 신적 수동태(Di-
vine Passive)적 사건입니다.

[예화]: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수동적 수혜자일 뿐,
그 판결의 근거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습니
다. 이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는 구원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증명합니
다. 확정된 법적 무죄 선언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당
당하게 화평의 삶을 사십시오.

라. 마태복음 7:7 <열릴 것이니> : ἀνοίγησεται <아노이게
세타이>

성경 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
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에게 열릴 것이니"

[분석]: 문을 열어주시는 주권적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미래형입니다.

[예화]: 우리가 두드릴 때 그 거룩한 문을 기꺼이 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는 하나님의 환대(Hospitality)를 약속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어이 문을 열어 맞이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계속 두드리라고 권면하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시면 달을 자가 없습니다.

마. 에베소서 2:8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 ἐστὲ σεσωσμένοι <에스테 세소스메노이>

성경 구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석]: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확정하는 완료 시제의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분사 구문입니다.

[예화]: 구원은 내가 물에서 헤엄쳐 나온 사건이 아니라, 물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사건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는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이 문법적 장치를 통해 설교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됨을 찬양하십시오.

32.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을 통해 절대적인 확신을 주라

가. 요한복음 10:28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 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우 메 아폴론타이>

성경 구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석]: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우 메' 결합의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보증합니다.

[예화]: 주님은 "망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은 주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성도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철통같은 방어막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박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 히브리서 13:5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 οὐ μή σε ἀνῶ <우 메 세 아노>

성경 구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석]: 한 문장에 이중 부정어가 반복되어 5중 부정을 이루는 강력한 이중 부정(Double Negative) 강조 표현입니다.

[예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당신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절대로,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고집을 이 문법이 담아냅니다. 인생의 캄캄

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이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적 약속을 지팡이 삼아 걸어가라고 권면하십시오.

다. 마태복음 24:35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οὐ μὴ παρέλθωσιν <우 메 파렐도신>

성경 구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석]: 천지의 소멸 가능성보다 말씀의 불변성을 더 강력하게 입증하는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입니다.

[예화]: 세상 모든 가치와 화려한 문명은 수명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날 확률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은 성도가 붙든 말씀이 얼마나 견고한 기초인지를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세상 대신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라고 성도들을 도전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6:37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 οὐ μὴ ἔκ

βάλλω ἔξω <우 메 에크발로 엑소>

성경 구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분석]: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보증인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입니다.

[예화]: "내 과거가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우리를 문전박대하실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이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그 수용의 법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마. 로마서 8:1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οὐδὲν ἄρα νῦν κ ατάκριμα <우덴 아라 닌 카타크리마>

성경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석]: '하나도 없다'는 강한 부정과 결합하여 정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적 선언입니다.

[예화]: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벽 안에 들어온 자에게 정죄라는 화살은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단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정죄할 때, 하나님의 이 이중 부정(Double Negative) 선언문을 들이미십시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33.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를 통해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을 보라

가. 빌립보서 2:7 <자기를 비워> : ἑαυτὸν ἐκένωσεν <헤아우톤 에케노센>

성경 구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분석]: 주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입니다.

[예화]: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비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는 주님의 성육신이 억지로 당하신 수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직접 내리신 사랑의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자발적 사랑을 전하십시오.

나. 갈라디아서 2:20 <자기 몸을 버리신> : παραδόντος ἑαυτόν <파라돈토스 헤아우톤>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분석]: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강조하는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입니다.

[예화]: 십자가는 실패한 순교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단입니다. 나라는 한 영

혼을 사기 위해 주님은 당신 자신을 '직접'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의 무게감은 우리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다. 요한복음 10:18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 ἀπ' ἑμαυτοῦ <압 에마우투>

성경 구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분석]: 목숨을 버리는 주체가 주님 자신임을 명확히 하는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적 표현입니다.

[예화]: 주님은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는 주님의 죽음이 철저히 계획된 자발적 순종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주도적인 희생 앞에 압도당하는 은혜를 설교하십시오.

라. 에베소서 5:2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 παρέ

δωκεν ἑαυτὸν <파레도켄 헤아우톤>

성경 구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분석]: 사랑의 증거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음을 보여주는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입니다.

[예화]: 진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행동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랑도 이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적 '자기 줌'의 원리 위에 서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마. 디모데전서 2:6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 δοὺς ἑαυτὸν <두스 헤아우톤>

성경 구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분석]: 몸값으로 지불된 주체가 주님 '그분 자신'임을
확정하는 재귀 대명사(Reflexive Pronoun)입니다.

[예화]: 노예였던 우리를 사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전 존
재를 화폐로 지불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
리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자신'과 바꾼 소중한 존재입니다.

34.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을 통해 삶의 주 권을 재설정하라

가. 고린도전서 6:19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 οὐκ ἔ
στε ἑαυτῶν <우크 에스테 헤아우톤>

성경 구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분석]: 인간 스스로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부정하는 속

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 표현입니다.

[예화]: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 부정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소유권의 착각이 불행의 시작이며,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참 평안이 시작됨을 전하십시오.

나. 고린도전서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 ἡγοράσθητε γὰρ τιμῆς <에고라스데테 가르 티메스>

성경 구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석]: 상거래 용어를 통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적 배경입니다.

[예화]: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예수의 피)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 발행되듯,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영

수증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시간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쓰여야 함을 강조하며 주권의 이양을 촉구하십시오.

다. 로마서 14:8 <주의 것이로다> : τοῦ κυρίου ἔσμεν <투 큐리우 에스멘>

성경 구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석]: 성도의 존재 귀속처를 명확히 정의하는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입니다.

[예화]: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소유물을 책임지시듯,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니 안심하라고 성도들을 위로하십시오. 소속감이 곧 안전감입니다.

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 οἱ δὲ τοῦ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호이 데 투 크리스투 예수>

성경 구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석]: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입니다.

[예화]: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바뀌면 라이프스타일도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이름표 앞에 "예수의"라는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이 붙어 있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마. 고린도전서 3: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 ὑμεῖς δὲ Χριστοῦ <히메이스 데 크리스투>

성경 구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분석]: 연쇄적인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 구조를 통해 우주적 소유권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다.

[예화]: 신앙생활은 내 권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 속격의 소유권(Genitive of Possession) 선언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일깨워줍니다. 소유권의 질서가 바로잡힐 때 삶의 모든 무질서가 해결됨을 전하십시오.

35. '목적 접속사(Purpose Clause)'를 통해 삶의 목적지를 보게 하라

가. 요한복음 3:16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ἵνα ἐξ ἡ ζωὴν αἰώνιον <히나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성경 구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석]: 접속사 <히나>(~하기 위하여)가 이끄는 목적 접속사(Purpose Clause)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희생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지향하는 최종 과녁을 명시합

니다.

[예화]: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처절한 고통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당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감동적으로 전하십시오.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목적의 산물입니다.

나. 에베소서 2:10 <선한 일을 위하여> : ἐπὶ ἔργοις ἀγαθοῖς <에피 에르고이스 아가도이스>

성경 구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석]: 전치사 <에피>와 함께 쓰여 창조와 재창조의 이유를 밝히는 목적 접속사(Purpose Clause)적 구문입니다.

[예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설계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디자인된 작품입니다.

다. 명품일수록 목적이 분명하듯,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고귀한 목적이 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다. 요한복음 10:10 <생명을 얻게 하고> : ἵνα ζωὴν ἔχωσιν <히나 조엔 에코신>

성경 구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석]: 주님의 성육신 목적을 규정하는 강력한 목적 접속사(Purpose Clause)입니다.

[예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거나 교훈을 주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도적은 우리를 이용하려 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결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 로마서 6:6 <다시는... 총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τοῦ μηκέτι δουλεύειν <투 메케티 둘류에인>

성경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석]: 십자가의 목적이 소극적인 죄 사함을 넘어 적극적인 자유에 있음을 보여주는 목적 접속사(Purpose Clause)적 부정사 구문입니다.

[예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소굴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한 해방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죄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당당한 자유자로 살 것을 이 목적 구문을 통해 선포하십시오.

마. 베드로전서 2:9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 ὅπως τὰς ἀρετὰς ἐξαγγείλητε <호포스 타스 아레타스 엑상게일레테>

성경 구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

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석]: 성도의 선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데 있음을 나타내는 목적 접속사(Purpose Clause)입니다.

[예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홍보 대사(Ambassador)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끼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명에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곧 사명임을 전하십시오.

36. '사역 동사(Causative/Effector Verb)'를 통해 구원의 주도권을 선포하라

가. 빌립보서 2:13 <행하게 하시나니> : ὁ ἐνεργῶν <호에 네르곤>

성경 구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

하게 하시나니"

[분석]: 에너지를 공급하여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역 동사(Causative Verb)적 분사입니다.

[예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조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내 의지 너머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실천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 떠미심'을 신뢰하고 그 동력에 몸을 맡기십시오.

나. 로마서 8:26 <성령이... 간구하시느니라> : τὸ πνεῦμα ὁ περιεργάζεται <토 프뉴마 휘페렌팅카네이>

성경 구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석]: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대리적 사역 동사(Causative Verb)의 흐름입니다.

[예화]: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의 한 문장도 뱉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의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의 에너지를 작동시키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고린도전서 3:6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 ὁ θεὸς ὁς ἡΰξανεῖν <호 데오스 에욱사넌>

성경 구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분석]: 생명의 성장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권적 사역 동사(Causative Verb)입니다.

[예화]: 농부는 씨를 심고 물을 줄 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신비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만드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동사가 증명합니다.

라. 요한복음 15:5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χωρὶς ἐμοῦ οὐ δύνασθε ποιεῖν οὐδέν <코리스 에무 우 뒤나스데 포이에인 우덴>

성경 구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석]: 주님이라는 에너지원(Source)이 없으면 인간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함을 선언하는 사역 동사(Causative Verb)적 전제입니다.

[예화]: 콘센트에서 빠진 가전제품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열심은 자기만족일 뿐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마. 골로새서 1:29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 κατὰ τὴν ἐνέργειαν αὐτοῦ <카타 텐 에네르게 이안 아우투>

성경 구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분석]: 내 수고의 원동력이 내 안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사역 동사(Causative Verb)적 명사 표현입
니다.

[예화]: 사도 바울이 그 고된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
었던 비결은 자기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엔진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사역자의 수고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따르는 것입니
다.

37. '불변사(Particle)'를 통해 문장의 온도를 읽어내라

가.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 ἄρα vñv <아라 뉘>

성경 구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석]: 결론적 불변사(Particle) <아라>는 확신에 찬 환희의 어조(Tone)를 담고 있습니다. 7장까지의 고뇌를 단숨에 씻어냅니다.

[예화]: 이 단어는 단순히 논리적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모든 정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도의 벅찬 감격을 담고 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자유를 만끽하는 이 환희의 온도를 성도들에게 전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7:20 <이러므로... 알리라> : ἄρα γε <아라 게>

성경 구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석]: 인과관계를 확정 짓는 불변사(Particle)가 판결의 단호함(Decisiveness)을 보여줍니다.

[예화]: 여기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말은 화려할 수 있고 겉모습은 꾸밀 수 있으나, 불변사가 가리키는 결론은 오직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실

함은 결국 삶의 열매로 증명될 수밖에 없음을 이 단호한 불변사를 통해 선포하십시오.

다. 히브리서 12:1 <이러므로... 둘러싼> : **τοιγαροῦν** <토이 가룬>

성경 구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분석]: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현재의 삶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접속 불변사(Particle)입니다.

[예화]: "앞서간 수많은 이들이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하늘의 수많은 응원단을 의식하며,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고 권면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 **οὕτως** <후토스>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분석]: 정도를 나타내는 불변사(Particle) <후토스>가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대변합니다.

[예화]: '이토록'이라는 짧은 단어 속에는 아들을 죽이기 까지 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사랑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이만큼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전하십시오.

마. 갈라디아서 1:6 <이같이 속히 떠나> : οὕτως <후토스>

성경 구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석]: 방법의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불변사(Particle)가 사도의 경악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사도의 탄식입니다. 피 값으로 산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빨리 쓰

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영적 충격을 이 불변사가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십시오.

38. '여격(Dative)'의 목적을 통해 사역의 목적지를 명확히 하라

가. 로마서 14:8 <주를 위하여> : τῷ κυρίῳ <토 큐리오>

성경 구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분석]: 여격(Dative) <토 큐리오>는 인생의 모든 행동이 귀속되는 최종 수혜자이자 목적지입니다.

[예화]: 우리 인생이라는 화살은 오직 '주님'이라는 과녁을 향해서만 날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생존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나. 갈라디아서 2:19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 θ
εῷ ζήσω <데오 제소>

성경 구절: "...이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
여 살려 함이니라"

[분석]: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방향과 이유(여격
(Dative))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모든 호흡과 생각은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 존재의 수혜자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
는 결단을 촉구하십시오.

다. 로마서 6:11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 ζῶντας τῷ
θεῷ <존타스 토 데오>

성경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찌어다"

[분석]: 여격(Dative)적 관계 속에서만 성도의 생명력이

의미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예화]: 세상의 유혹이나 정욕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격은 우리가 어디에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라. 고린도후서 5:15 <사신 자를 위하여> : τῷ... ἀναστάντι
<토... 아나스탄티>

성경 구절: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분석]: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목적(여격(Dative))을 재설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예화]: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께 내 남은 생애를 올인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던 삶을 청산하고, 나를 사신 분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십시오.

마. 에베소서 5:19 <주께 노래하며> : τῷ κυρίῳ <토 큐리오>
>

성경 구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분석]: 찬양의 수취인이 오직 주님(여격(Dative)) 한 분이심을 명확히 합니다.

[예화]: 찬양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공연이 아닙니다. 여격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상기시킵니다. 관중석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노래하십시오.

39.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을 통해 성도의 거룩한 습관을 강조하라

가. 마태복음 6:33 <구하라> : ζητεῖτε <제테이테>

성경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과 습관을 요구하는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입니다.

[예화]: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만 반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은 '숨 쉬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결단보다 매일 주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거룩한 생활 습관'임을 강조하십시오.

나.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 προσεύχεσθε <프로슈케스데>

성경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분석]: 명령형의 현재성은 동작의 끊임없는 지속성(Continuity)을 강조하는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입니다.

[예화]: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비상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나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은 우리가 기도의 안테나를 24시간 켜두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경지로 성도들을 인도하십시오.

다. 에베소서 5:18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 πληροῦσθε
<플레루스데>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석]: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끊임없이 채워짐을 당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입니다.

[예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밑 빠진 독처럼 우리는 금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은 매일 은혜의 폭포수 아래 서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도 나를 채워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일상이 되어야 함을 전하십시오.

라. 빌립보서 4:4 <항상 기뻐하라> : χαίρετε <카이레테>

성경 구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석]: 현재 시제의 명령은 기쁨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 의지적 습관임을 보여주는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입니다.

[예화]: 상황이 좋아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기에 기뻐하기로 매 순간 결정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의 신앙입니다. 기쁨은 성도가 매일 훈련해야 할 근육과 같음을 강조하십시오.

마. 고린도전서 11:24 <나를 기념하라> : ποιείτε <포이에 이테>

성경 구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석]: 성찬의 정신이 성도의 삶 전체에서 반복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입니다.

[예화]: 예배당 문을 나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의 희생을 계속해서 기억(Remembrance)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Present Imperative)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곧 성도의 능력임을 전하십시오.

40. '중간태(Middle Voice)'의 신비를 통해 성화의 기쁨을 전하라

가. 에베소서 5:16 <세월을 아끼라> : ἔξαγοραζόμενοι <엑사고라조메노이>

성경 구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석]: 주어가 자신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취함을 뜻하는 중간태(Middle Voice) 분사입니다. '시장 밖으로 사서 나오다'라는 상업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시장' 같은 세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구출해 내는' 행위입니다. 중간태(Middle Voice)는 이 수고가 결국 '나 자신'을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기 사랑입니다.

나. 마태복음 16:24 <자기를 부인하고> : ἀπαρνησάσθω <아파르네사스도>

성경 구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분석]: 자발적인 결단이 주어에게 유익으로 돌아옴을 내포하는 중간태(Middle Voice)적 명령입니다.

[예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자아'를 찾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중간태(Middle Voice)는 "네가 너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속삭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곧 나를 가장 영화롭게 살리는 길임을 역설하십시오.

다. 사도행전 2:40 <구원을 받으라> : σώθητε <소데테>

성경 구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분석]: 수동의 형태이나 주체의 결단이 본인에게 유익이 됨을 뜻하는 중간태(Middle Voice)적 권면입니다.

[예화]: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방주에 발을 내디며 올라타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중간태(Middle Voice)는 그 결정의 혜택이 오롯이 당신에게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구원의 방주로 뛰어들라고 강력히 호소하십시오.

라. 고린도후서 7:1 <자신을 깨끗케 하자> : καθάρισωμεν ἑαυτούς <카다리소멘 헤아우투스>

성경 구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라"

꽂케 하자"

[분석]: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본인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길임을 보여주는 중간태(Middle Voice)적 표현입니다.

[예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임 받듯,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수고는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화를 나를 위한 최고의 장식으로 여기게 하십시오.

마. 유다서 1:21 <자신을 지키며> : τηρήσατε ἑαυτοῦς <테레사테 헤아우투스>

성경 구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분석]: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는 중간태(Middle Voice)입니다.

[예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안전하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경계선 안에 나를 두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중간태(Middle Voice)적 보존은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 내가 선택해야 할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41. '중의성(Double Meaning)'을 통해 입체적인 진리를 선포하라

가. 요한복음 3:3 <거듭나지 아니하면> : γεννηθῆ ἄνωθεν
<겐네데 아노덴>

성경 구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석]: <아노덴>은 '다시(Again)'와 '위로부터(From above)'라는 뜻을 동시에 품은 중의성(Double Meaning) 있는 단어입니다.

[예화]: 거듭남은 단순히 한 번 더 태어나는 생물학적 재

시작이 아닙니다.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시(Again)'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의 반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From above) 내려오는 근원적인 변화임을 선언하십시오.

나. 요한복음 1:5 <깨닫지 못하더라> : οὐ κατέλαβεν <우카텔라벤>

성경 구절: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석]: <카텔라벤>은 '이해하다'와 '이기다/억누르다'는 뜻을 동시에 가진 중의성(Double Meaning)적 표현입니다.

[예화]: 어둠은 빛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키거나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복음의 빛을 꺼뜨릴 수 없음을 이 중의성(Double Meaning)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요한복음 12:32 <땅에서 들리면> : ὑψωθῶ <훤소도>

성경 구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분석]: 십자가에 '매달림'과 영광스럽게 '높아짐'을 동시에 의미하는 중의성(Double Meaning)적 단어입니다.

[예화]: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의 처형대였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는 주님이 가장 높이 들리신 승리의 보좌였습니다. 수치가 곧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위로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 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스타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분석]: '끝났다'는 종결과 '값을 완불했다'는 상업적 의

미를 동시에 담은 중의성(Double Meaning)입니다.

[예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값을 '완전한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다 갚았다!"는 선언은 우리가 더 이상 정죄의 채무에 시달릴 필요가 없음을 뜻합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이 중의적 단어로 입증하십시오.

마. 요한복음 3:8 <성령으로 난 사람도> : τὸ πνεῦμα <토프뉴마>

성경 구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분석]: '바람'과 '영'을 동시에 뜻하는 중의성(Double Meaning)적 단어입니다.

[예화]: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나뭇잎을 흔들며 자기 존재를 증명하듯,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나 우리 인생을 강력하게 흔들며 바꾸십니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룩한 바람인 성령께 인생의 돛을 맡기는 신비를 설교하십시오.

42. '어원적 반복(Cognate Accusative)'을 통해 동작의 강렬함을 전하라

가. 디모데후서 4:7 <선한 싸움을 싸우고> : τὸν καλὸν ἀγῶνα ἡγώνισμαι <톤 칼론 아고나 에고니스마이>

성경 구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분석]: 동일한 어원의 명사(아고나)와 동사(에고니스마이)를 중첩시켜 행위의 완전성과 강렬함을 극대화하는 어원적 반복(Cognate Accusative)입니다.

[예화]: 바울은 적당히 흥내만 내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링 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권투 선수처럼,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 '싸움다운 싸움'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타협 없는 영적 경주를 완수해야 함을 강조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2:10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 ἐχά

ρησαν χαράν μεγάλην <에카레산 카란 메갈렌>

성경 구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 하더라"

[분석]: 기쁨이라는 명사와 동사를 겹쳐 써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극치를 나타내는 어원적 반복(Cognate Accusative)입니다.

[예화]: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구주를 발견한 순간,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환희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토록 '기쁨다운 기쁨'을 주는 사건임을 전하십시오.

다. 에베소서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 διὰ πάσης προσευχῆς καὶ δεήσεως <디아 파세스 프로슈케스 카이 데에세오스>

성경 구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분석]: 기도의 행위와 대상을 유기적으로 묶어 기도의 전폭성을 강조하는 어원적 반복(Cognate Accusative)적 구조입니다.

[예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전심전력하는 기도의 태도를 성도들에게 도전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7:24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 τὴν δικαίαν κρίσιν κρίνετε <텐 디카이안 크리신 크리네테>

성경 구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분석]: 판단의 기준과 행위를 일치시켜 왜곡 없는 진실을 강조하는 어원적 반복(Cognate Accusative)입니다.

[예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절대적인 잣대 자체로 세상을 분별하는 정직한 성도의 삶을 촉구하십시오.

마. 베드로전서 3:14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 τὸν δὲ φόβον αὐτῶν μὴ φοβηθῆτε <톤 데 포본 아우톤 메 포베데테>

성경 구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분석]: 두려움이라는 대상을 동사와 연결하여 세상이 주는 공포를 무력화시키는 어원적 반복(Cognate Accusative)입니다.

[예화]: 세상이 주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다운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43. '역전의 접속사(Adversative Particle)'를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

가. 에베소서 2:4 <그러나 하나님> : ὁ δὲ θεὸς <호 데 데오스>

성경 구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흠에 풍성하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분석]: 인간의 비극적 상태 뒤에 나오는 강력한 반전의
역전의 접속사(Adversative Particle) <데>입니다.

[예화]: 죄의 결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인생에 하
나님의 "그러나"가 개입했습니다. 이 접속사 하나가
지옥의 절망을 천국의 소망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곳에 하나님의 역전은 시작됩
니다.

나. 로마서 6:23 <하나님의 은사는> : τὸ δὲ χάρισμα τοῦ θ
εοῦ <토 데 카리스마 투 데우>

성경 구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
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석]: 사망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생명으로 뒤바꾸는
역전의 접속사(Adversative Particle)입니다.

[예화]: 인간의 죄가 만든 결론은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의 반전은 생명입니다. 이 접속사 하나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 놓았음을 선포하십시오.

다. 사도행전 13:30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 ὁ δὲ θεὸς ἠγειρεν αὐτόν <호 데 데오스 에게이렌 아우톤>

성경 구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분석]: 인간의 살해 행위를 하나님의 부활 사역으로 뒤엎는 역전의 접속사(Adversative Particle)입니다.

[예화]: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려 했으나, 하나님의 "그러나"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강조하십시오.

라. 고린도전서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 ἀλλὰ τὰ μωρὰ τοῦ κόσμου ἐξελέξατο ὁ θεός <알라 타 모라 투 코스무 엑셀렉사토 호 데오스>

성경 구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분석]: 세상의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강력한 역전의 접속사(Adversative Particle) <알라>입니다.

[예화]: 세상이 버린 것을 보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전하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마. 빌립보서 2:27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 ὁ δὲ θεὸς ἠλέησεν αὐτόν <호 데 데오스 엘레에센 아우톤 >

성경 구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분석]: 질병과 죽음의 위협을 생명의 연장으로 바꾸는 역전의 접속사(Adversative Particle)입니다.

[예화]: 상황은 절망적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접속사가 개입하여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를 기대하십시오.

44. '미완료의 반복(Iterative Imperfect)'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설교하라

가. 누가복음 15:20 <달려가> : ᄃ드라멘 <에드라멘>

성경 구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분석]: 동작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미완료의 반복(Iterative Imperfect)적 뉘앙스입니다.

[예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날만 우연히 문밖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길가를 서성였음을 암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를 전하십시오.

나. 사도행전 1:14 <기도에 힘쓰니라> : ἦσαν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에산 프로스카르테룬테스>

성경 구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분석]: 기도의 동작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미완료의 반복(Iterative Imperfect)적 구문입니다.

[예화]: 초대 교회의 능력은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끈질긴 '반복의 무릎'에 있었음을 강조하십시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능력이 됩니다.

다. 마가복음 15:31 <희롱하며> : ἐμπαίζοντες <엠파이존테스>

성경 구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분석]: 주님을 향한 조롱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졌음을 나타내는 미완료의 반복(Iterative Imperfect)적 묘사입니다.

[예화]: 주님은 한두 번의 모욕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 오는 끝없는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긴 시간 모욕을 반복적으로 참아내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라. 사도행전 3:2 <구걸하는 자라> : ἐλεημοσύνην αἰτεῖν
<엘레에모쉬넨 아이테인>

성경 구절: "...성전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분석]: 앓은뱅이의 절망적인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미완료의 반복(Iterative Imperfect)적 상태입니다.

[예화]: 수십 년간 지속된 절망의 반복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단번에 끊어집니다. 지겨운 죄의 반복과 고통의 순환을 끊으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마. 마태복음 7:25 <부딪히되> : προσέπεσαν <프로세페산>

성경 구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분석]: 풍랑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타격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미완료의 반복(Iterative Imperfect) 적 시각화입니다.

[예화]: 시련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흔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이유를 시제의 역동성으로 설명하십시오.

45. '신적 필연(Divine Necessity)'을 통해 구원의 작정을 선포하라

가. 요한복음 3:14 <들려야 하리니> : δεῖ <데이>

성경 구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분석]: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작정과 당위성을 뜻하는 신적 필연(Divine Necessity) 동사입니다.

[예화]: 십자가는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구원의 유일한 '필연'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이 단어 하나로 선포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16:21 <살아나야 할 것을> : δεῖ... ἀναστῆναι
<데이... 아나스테나이>

성경 구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분석]: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나타내는 신적 필연(Divine Necessity)입니다.

[예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가기 위한 '반드시'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음을 믿으라고 권면하십시오.

다. 누가복음 19:5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 δεῖ με μεῖ
ραι <데이 메 메이나이>

성경 구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
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분석]: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신적 계획임을 보
여주는 신적 필연(Divine Necessity)입니다.

[예화]: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이 당신을 지목하여 찾아오
셨음을 강조하십시오.

라. 사도행전 1:16 <마땅하도다> : ἔδει <에데이>

성경 구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미리 말씀
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분석]: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이루
어짐을 나타내는 신적 필연(Divine Necessity)입니
다.

[예화]: 인간의 배신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표 안에서 사
용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 요한복음 4:4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 ἔδει δὲ αὐτὸ
ν διέρχεσθαι <에데이 데 아우톤 디에르케스다이>

성경 구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분석]: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나
타내는 신적 필연(Divine Necessity)입니다.

[예화]: 남들이 꺼리는 자리에 주님이 굳이 가셔야 했던
이유는 그곳에 구원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46. '강조된 주어(Emphatic Pronoun)'를 통해 사역의 유일성 을 확인하라

가.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 Ἐγώ εἰμι <에고

에이미>

성경 구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분석]: 생략 가능한 주어를 명시하여 존재의 독보적인 권위를 세우는 강조된 주어(Emphatic Pronoun)입니다.

[예화]: 주님은 수많은 목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유일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에고 에이미'의 주님만 따르게 하십시오.

나. 요한복음 14:6 <내가 곧 길이요> : Ἐγώ εἰμι ἡ ὁδός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석]: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주님 자신임을 선포하는 강조된 주어(Emphatic Pronoun)입니다.

[예화]: 길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에고'의 선언은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음을 못 박는 선언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다. 마태복음 11:28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κάγω ἄν
παύσω ὑμᾶς <카고 아나파우소 휘마스>

성경 구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석]: 안식의 공급 주체가 오직 주님임을 강조하는 강조된 주어(Emphatic Pronoun)입니다.

[예화]: 돈도, 성공도 줄 수 없는 안식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이 주어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라. 요한복음 15:1 <나는 참 포도나무요> :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
ελος ἡ ἀληθινή <에고 에이미 헤 암펠로스 헤 알레디네>

성경 구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분석]: 생명의 근원이 주님임을 강조하는 강조된 주어 (Emphatic Pronoun)입니다.

[예화]: 생명의 에너지는 오직 이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줄기에 붙어 있지 말고 참 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마. 요한복음 6:35 <나는 생명의 떡이니> :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성경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분석]: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유일한 양식이 주님임을 선언하는 강조된 주어(Emphatic Pronoun)입니다.

[예화]: 주님은 떡을 나누어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배부르십시오.

47. '동족 목적어(Cognate Object)'를 통해 은혜의 극치를 표현하라

가. 에베소서 3:19 <충만하게 하시기를> : πληρωθῆτε εἰς πᾶν τὸ πλήρωμα <플레로데테 에이스 판 토 플레로마>

성경 구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분석]: 같은 의미의 단어를 겹쳐 써서 상태의 극치를 표현하는 동족 목적어(Cognate Object)적 구문입니다.

[예화]: 하나님은 은혜를 조금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풍성함(Fullness)이 우리라는 그릇에 넘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관대함을 전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2:10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 ἐχάρησαν χαρὰν μεγάλην <에카레산 카란 메갈렌>

성경 구절: "저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

더라"

[분석]: 기쁨이라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동족 목적어 (Cognate Object)입니다.

[예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좋은 기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감격을 시각화하여 전하십시오.

다. 고린도후서 12:7 <지극히 큰 계시> : τῆ ὑπερβολῆ τῶν ἀποκαλύψεων <테 휘페르볼레 톤 아포칼립세온>

성경 구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분석]: 초월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중첩하여 무게감을 전달하는 동족 목적어(Cognate Object)적 성격의 표현입니다.

[예화]: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무거운 영광임을 인식하게 하십시오.

라. 베드로전서 1:8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 χ
αρᾶ ἀνεκλαλήτω καὶ δεδοξασμένα <카라 아네클랄레
토 카이 데독사스메네>

성경 구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
뻐하니"

[분석]: 즐거움과 기쁨을 최상급적 수식어로 묶어 묘사
하는 동족 목적어(Cognate Object)적 강조입니다.

[예화]: 천국 시민이 누리는 기쁨은 논리적으로 설명되
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한 자만이 아는 신비임을 전
하십시오.

마. 에베소서 1:19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
κατὰ τὴν ἐνέργειαν τοῦ κράτους τῆς ἰσχύος αὐτοῦ <카
타 텐 에네르게이안 투 크라투스 테스 이스퀴오스 아우
투>

성경 구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분석]: 힘, 강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들을 쏟아부어 전능하심을 시각화하는 동족 목적어(Cognate Object)적 나열입니다.

[예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우주의 그 어떤 물리적 힘보다 강합니다. 그 에너지가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8. '미래 완료(Future Perfect)'를 통해 확정된 승리를 선포하라

가. 마태복음 16:19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 ἔσται λελυμέ
vov <에스타이 렐뤼메논>

성경 구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분석]: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하늘에서 승인되었음을 뜻하는 미래 완료(Future Perfect)적 구문입니다.

[예화]: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보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허락된 뜻을 이 땅에 집행하는 권세입니다. 기도의 확실성을 선포하십시오.

나. 마태복음 18:18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 ἔσται δεδεμ
ένα <에스타이 데데메나>

성경 구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분석]: 땅의 결정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확정된 것임을 보증하는 미래 완료(Future Perfect)적 표현입니다.

[예화]: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정이 하늘의 도장을 찍는 것임을 전하십시오.

다. 히브리서 2:8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 πάντα ὑπέταξας <판타 휘페탁사스>

성경 구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

으니..."

[분석]: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미 완료된 사건처럼 선언하는 미래 완료(Future Perfect)적 작정입니다.

[예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도 위에서 만물은 이미 주님 발아래 굴복해 있습니다. 최후 승리의 확신을 주십시오.

라. 요한복음 3:18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ἤδη κέκριται <에데 케크리타이>

성경 구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석]: 미래의 심판이 현재에 이미 완료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미래 완료(Future Perfect)적 선언입니다.

[예화]: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오늘이 이미 심판의 결과임을 경고하고 구원을 촉구하십시오.

마. 에베소서 2:6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συνεκάθισεν <쉬네카디센>

성경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석]: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를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완료된 신분으로 묘사하는 미래 완료(Future Perfect)적 신분입니다.

[예화]: 성도의 주소지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미 확보된 승리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49. '상호 대명사(Reciprocal Pronoun)'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라

가. 에베소서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 ἀλλήλους <알렐루스>

성경 구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분석]: 신앙이 고립된 섬이 아닌 유기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상호 대명사(Reciprocal Pronoun)입니다.

[예화]: 용서와 사랑은 혼자 닦는 도(道)가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완성됩니다. 지체들과의 갈등조차 우리가 빚어져 가는 필수 과정임을 가르치십시오.

나. 요한복음 13:34 <서로 사랑하라> : ἀγαπάτε ἀλλήλους <아가파테 알렐루스>

성경 구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분석]: 사랑의 흐름이 쌍방향적 순환임을 보여주는 상호 대명사(Reciprocal Pronoun)입니다.

[예화]: 교회는 사랑을 받는 자만 있는 곳도, 주기만 하는 자만 있는 곳도 아닙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지체

들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게 하십시오.

다. 갈라디아서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 ἀλλήλων τὰ βάρη βαστάζετε <알렐론 타 바레 바스타제테>

성경 구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분석]: 고난의 분담이 공동체의 의무임을 나타내는 상호 대명사(Reciprocal Pronoun)적 사명입니다.

[예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때 몸의 연합은 강해집니다. 옆 형제의 무게를 내 어깨로 옮기는 것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라. 데살로니가전서 5:11 <피차 권면하고> : παρακαλεῖτε ἀλλήλους <파라칼레이테 알렐루스>

성경 구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분석]: 영적인 세움이 모든 지체의 상호 작용임을 보여

주는 상호 대명사(Reciprocal Pronoun)입니다.

[예화]: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설교자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라는 단어 속에 담긴 공동체적 권위를 전하십시오.

마. 로마서 12:10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 τῆ φιλαδέλφια εἰς ἀλλήλους <테 필라델피아 에이스 알렐루스>

성경 구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분석]: 사랑과 존경의 경쟁이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호 대명사(Reciprocal Pronoun)입니다.

[예화]: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나 경쟁하듯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50. '최상급 비교(Superlative Comparison)'를 통해 은혜의 절대성을 선언하라

가. 로마서 5:20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ὑπερεπερίσσευσεν ἡ χάρις <히페레페릿슈센 헤 카리스>

성경 구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분석]: 어떤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서는 압도적 크기를 표현하는 최상급 비교(Superlative Comparison)입니다.

[예화]: 죄가 아무리 홍수처럼 불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덮어버리는 대해와 같습니다. 우리 죄보다 언제나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나. 에베소서 3:20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ὑπερεκπερισσοῦ <히페레크페릿슈>

성경 구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분석]: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의 크기를 삼중 강조를 통해 나타내는 최상급 비교(Superlative Comparison) 적 부사입니다.

[예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기도의 잔보다 훨씬 큼니다. 우리가 바다를 구하면 하나님은 대양을 주시는 분임을 전하십시오.

다. 고린도전서 13:13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mu\epsilon\acute{\iota}\zeta\omega\nu$
 $\delta\grave{\epsilon}$ $\tau\acute{o}\upsilon\tau\omega\nu$ η $\acute{\alpha}\gamma\acute{\alpha}\pi\eta$ <메이존 데 투톤 헤 아가페>

성경 구절: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석]: 모든 가치 중 가장 우위에 있는 본질을 확정하는 최상급 비교(Superlative Comparison)적 형용사입니다.

[예화]: 믿음과 소망도 귀하지만, 영원까지 남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역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함을

전하며 마무리하십시오.

라. 빌립보서 2:9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 τὸ ὄνομα τὸ ὑπὲρ πάντων ὀνομα <토 오노마 토 휘페르 판 오노마>

성경 구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분석]: 우주 만물 중 가장 높은 권위의 정점을 선언하는 최상급 비교(Superlative Comparison)적 표현입니다.

[예화]: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이름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마. 고린도후서 4:17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 καθ' ὑπερβολὴν εἰς ὑπερβολὴν <카트 휘페르볼렌 에이스 휘페르볼렌>

성경 구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

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분석]: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며 영광의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는 최상급 비교(Superlative Comparison)적 중첩입니다.

[예화]: 현재의 고통은 깃털처럼 가볍고 영광은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복을 시야에 두게 하십시오.

헬라어반 교재

초판 발행 2026. 1. 5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퍼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r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